



제1편 지리地理

제1장 자연환경

제1절 총설(總說)

지구의 표면좌표(表面座標)를 지리에서 위치(位置)라 하는데 표면의 좌표 위치는 위도(緯度)와 경도(經度)를 근거로 말하고 혹은 나타낸다. 위도는 적도에 평행하게 가로로 된 지구위에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적도를 0° 로 남북 각 90° 에 이르며 북으로 켜 것을 북위(北緯), 남으로 켜 것을 남위(南緯)라 함)로 대개 기후를 말하는데 사용하고, 경도란 지구상 위치를 표시하는 좌표로서(본초자오선(本初子午線)을 중심으로 동쪽을 동경(東經), 서쪽을 서경(西經)이라고 함) 표준시간의 개념(概念)이 있다.

이 밖에도 지리의 위치는 크게 나눠 다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1. 수리적 위치
2. 지리적 위치
3. 관계적 위치

이처럼 구분함은 위치를 설명하기에 용이(容易)한 탓이다.

수리적 위치는 자연적(自然的)인 위치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불변적(不變的)이지만, 지리적 위치나 관계적 위치는 지역과 인근지역의 발전으로 인해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 가변적(可變的)¹⁾이라 할 수 있다.

1) 예 : 부산 새만금 항만은 지도를 바꿔 놓았음

제2절 위치(位置)

1. 수리적(數理的) 위치

우리 장수(長水)군은 대체적으로 남북이 길고, 동서가 짧은 모양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동(東)은 계북면 양악리 상단부이고,
서(西)는 산서면 사상리가 끝이다.

남(南)은 변암면 대론리가 하단이며,
북(北)은 계북면 원촌리가 끝이다.

동서(東西)의 거리는 약 20km정도이고 남과 북은 44km, 지구상 좌표는 북위 35° 동경 127°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533.43km²(전북의 6.6%)이며, 인구는 23,478명(남11,735명, 여11,743명)으로 (전북의 1.27%), 그 중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세대는 188세대다. 그리고 등록외국인은 262명(남81명, 여181명)이다. 가구수는 10,282 가구(전북의 1.4%)이다.(2009년 말)

행정구역은 1읍 6면 73리 199행정리이며 283개 자연마을과 457개 반(班)으로 구성되어 있다.(2009년 말) 1개 도(道)에 6개 시·군을 접하고 있는 우리 장수군의 경지면적은 7,935ha로 이 중 논(畓)은 4,903ha이고, 밭(田)은 3,032ha로 장수군 전체면적의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동부 산악지대인 관개로 임야는 40,425ha로 전체 면적의 75.8%를 차지하고 있다.

천연적 위치가 해발 430m 고지(高地)에 위치해 있는 장수군의 연평균 기온(2009년)은 11°C이고 2009년도 강수량은 1,308.9mm로 월평균 109mm 내외의 비가 내린 셈이다. 장수군은 세계 동위권(同位圈)의 평균 기온인 17°C에 비해 6°C가 낮은 편이고, 전주지역의 평균기온 12°C보다도 1°C정도 낮은 편이다. 근래에는 지구 온난화(溫暖化) 현상으로 지구 전체가 뜨거워짐으로 인해 장수의 기온도 점차 올라가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2009년도는 강수량이 적어 1,308.9mm이었으나 우량은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한다. 이처럼 우량이 많은 이유는 1천m 이상의 높은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게 주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대신 타지에 비해 바람이 적고 기온의 차감기온 차이도 적어 다습한 편에 속한다. 개괄적 기류는 냉하면서 온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분지적(盆



地的)특성 때문인데, 분지적 특성의 원인을 살펴보면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시작한 분계 점으로 낙동강, 섬진강, 금강의 3대강 근원지이며, 덕유산, 장안산, 팔공산 등 해발 1천 m 이상의 고산(高山)들이 벽을 이루고 있어 계절풍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으며 대륙성의 냉한 기온도 비교적 적어 삼한사온(三寒四溫) 현상이 정확한 편이라 할 수 있다.

2. 지리적 위치

소백(小白)과 노령(蘆嶺)의 협곡지에 지리적 위치를 하고 있는 장수군은 동서가 짧은 대신 남북은 긴 편이다. 따라서 장수군의 극동부(極東部)인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 상당 지점은 동경 127도 42분이며, 극서(極西)지점인 산서면 사상리는 동경 127도 22분이다. 또한 극북(極北)지점인 계북면 원촌리는 북위 35도 49분에 해당되고 극남(極南)지점인 번암면 유정리는 북위 35도 28분에 위치하고 있다. 장수군이 청정지역으로 그리고 인심이 후박한 원인도 따지고 보면 지리적 위치의 영향에 기인하였음도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우리나라 전역을 살펴보면 천주대맥(天主大脈)이 반도 중앙을 지나면서 마치 호랑이가 중국대륙을 집어삼킬 듯 웅크린 자세로 앉아 있는 형상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중앙의 대산맥을 중심으로 양면은 산악과 평영(平塋)의 구릉으로 형성되어 크고 작은 강들이 서북쪽에서 발원해 동남쪽으로 흐르고 또는 동북쪽에서 발원해 서남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천주(天主)인 백두산에서 이곳 장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산경(山經)은 대략 다음과 같다.

백두산 천지, 장지봉, 노향령, 황토령, 태백산, 황부령, 설한령, 낭림산, 애전산, 고라발, 죽전령, 노동치, 박위령, 추포령, 온정령, 금강산, 진부령, 오색령, 구룡령, 오대산, 대관령, 태백산, 소백산, 죽령, 계룡산, 불일산, 속리산, 봉황산, 흑운산, 추풍령, 삼도봉, 대덕산, 덕유산, 육십령, 장안산, 노치, 팔공산, 선각산, 마이산, 주화산에서 남북행한 남노(南蘆)와 북노(北蘆)가 시작되며 남노는 광양(光陽) 백운산과 목포(木浦) 유달산에 이르고 북노는 부여(夫餘) 부소산에 이른다. 남(南)과 북(北)을 잇고 동(東)과 서(西)를 격리하는 지세의 장수는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3대 강을 분수(分水) 하면서 경상남도와 충청, 호남전역을 연맥(緣脈)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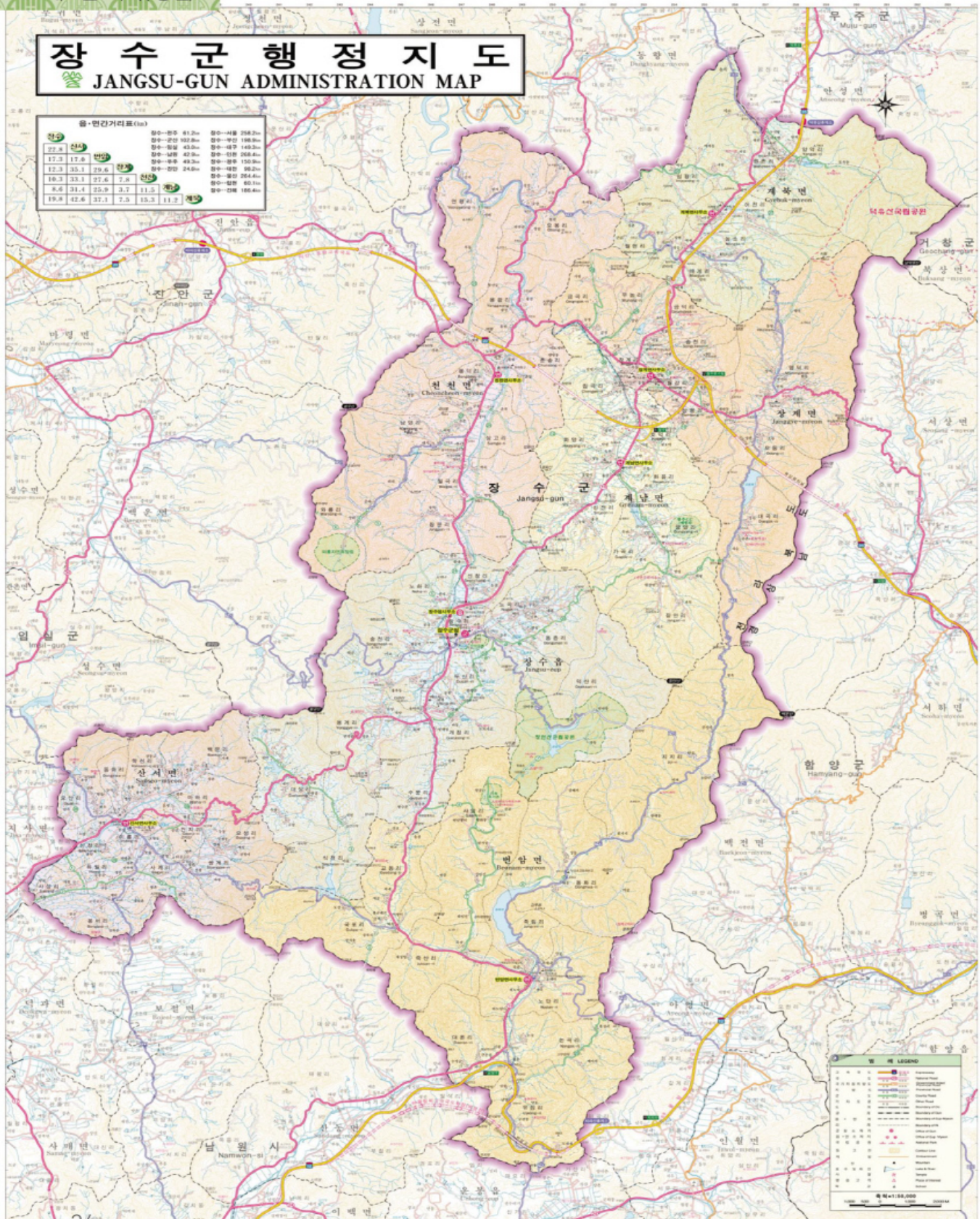
다시 말하자면 장수는 지리산을 분맥(分脈)시켜 보냄으로서 동으로는

장수군 행정지도

JANGSU-GUN ADMINISTRATION MAP

읍·면간거리표(km)

한성	신안	장수	진안	진천	진천
22.8	24.5	41.2	43.2	43.2	43.2
17.3	17.8	42.3	42.3	42.3	42.3
12.3	35.1	29.6	29.6	29.6	29.6
18.3	33.1	27.6	27.6	27.6	27.6
8.6	31.4	25.9	25.9	25.9	25.9
19.8	42.6	37.1	37.1	37.1	37.1



낙동강, 서남으로는 섬진강, 서북으로는 금강을 분수하는 독특한 요새지가 되며, 경남, 호남 전역과 충남 9읍을 아우르는 근원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이유로는 우선 북서쪽으로 흐르는 금강을 보면 그 근원이 장수에서 시작되어 진안,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대덕, 연기, 청양, 공주, 부여, 논산, 강경을 거쳐 옥구 군산만에 유입되고, 서남으로 흐르는 섬진강 역시 장수발원을 기점으로 남원, 곡성, 구례, 하동을 거쳐 남해로 유입되며, 동남쪽으로 흐르는 낙동강 역시 장수에서 시작해 함양, 산청, 진양을 거쳐 밀양에서 낙동강 원류와 합수해 김해를 지나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에 장수는 분명 경상 남도와 충청 9읍, 호남 전역의 중요한 지리적 요새지가 아닐 수 없다.

장수군은 북으로 무주군과 군계(郡界)를 이루고 서쪽으로는 진안군과 임실군에 군계를 두고 있으며, 남으로는 남원시와 군계를 이루고 있고 동으로는 함양군과 거창군과 도계(道界)를 이루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 미미할 때는 일상생활 전반을 육로를 이용해 도보 하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문물교화와 혼인 등의 인간관계는 지역적으로 묶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북쪽에 위치한 장수군 계북면 원촌리와 양악리 지역 주민은 무주군 관내인 안성면과 인접한 관계로 안성시장을 이용하면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서쪽에 위치한 장수와 천천은 인접한 진안 상인들이 왕래하면서 상업적 거래를 통한 문화와 경제적 교류가 왕성했고, 남서(南西)인 산서면은 가까운 임실군 오수면의 오수시장을 많이 이용했으며 남쪽인 변암면은 남원과 가깝다 보니 문화적·사회적·경제적 교류가 활발해 동일 생활권이라 해도 틀림이 없을 정도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서민의 교통수단인 시내버스가 남원에서 출발해 변암면 지리리를 비롯해 사암리, 교동리, 금천마을까지 왕래하기 때문에 생활권이 남원에 속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관계적 위치

장수군은 동으로 경상남도 함양군과 거창군을 경계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전북 남원시와 경계를 이루고 서로는 임실군과 진안군을 경계하고 있다. 또한 북으로는 무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관계적 위치를 보면 전라북도 동부 산악지대에 속한다. 그러나 산악지대라 해도 장수처럼 사통오달의 교통망이 엉켜 있는 곳도 그리 많지가 않다.

장수군은 남북으로 19번국도가 관통하듯 통과되고 동서로는 천천면과 장계면 일부이긴 하나 26번국도가 통과 하는데다, 1980년대 중반의 국가 교통산업개발의 일환으로 광주와 대구를 잇는 88고속도로가 변암면 대론리, 유정리 일부를 통과하고, 군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천천면과 계남면을 통과하면서 장수요금소(Toll Gate)를 만들어 현재에 와서는 교통의 요새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탈바꿈했다.

국도 19호선은 남해~원주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도로는 남해에서 시작해 구례~곡성~남원~장수~무주~영동~보은~충주~원주에 이르고, 26번국도는 군산~대구선이라 하는데 군산~익산~전주~진안~장수~함양~거창~함천~고령~대구에 이른다.

19번국도는 태백산 이서지방의 문물 또는 남해안 지방의 문물을 충남북과 경기 북부 또는 강원도로 영서지방의 문물을 반대로 남해안 지방으로 운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도로다.

그리고 26번 국도는 서해안 일대의 문물을 동해안 지대로 혹은 동해안 지대의 문물을 서해안 지대로 운반하는데 필요한 중심적 도로였다. 그러나 지금은 고속도로가 동서남북으로 횡단하는 바람에 더 빠르게 더 많게 더 싸게 공급해 수요를 충족하고 문물교류 역시 더 한층 활발해져 장수가 교통의 요새지 역할을 해내는데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지만, 국도의 이용은 갈수록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교통의 요새지로 발돋움하다 보니 장수군 역시 빠른 속도로 발전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산간벽지란 오명(汚名)을 벗지 못하는 것은, 교통의 발달과 함께 경제적 산업적 발달을 가져오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며 도시 위주의 발전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시책과 사람들의 뿌리 깊은 탈농(脫農)인식에도 원인이 있다할 것이다. 이처럼 장수군은 관계적 위치로 볼 때 매우 소중한 중대한 곳임에 틀림없다.

제3절 지형(地形)과 지질(地質)

1. 지형(地形)



마치 곰(熊)이 서서 걸어가는 형상을 하고 있는 장수군의 지형을 살펴보면 북에서 시작하여 남으로 향하면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수군은 덕유산 줄기에 자리한 탓에 대부분이 지형상 산악지대이다. 지형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계북면은 남덕유산(1508m) 줄기가 뺨어내려 양악리, 원촌리에 닿았으며 깃대봉, 매계리의 솔고개 재와 월현리 앞의 수락봉, 원촌, 임평리의 영귀산, 양악리의 시루봉, 압곡봉, 어전리 앞산인 삿갓봉 등이 있어 대부분 산악으로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장계면은 남덕유산의 험찬 기세가 명덕리로 내려오고 대곡리, 오동리, 남산마을은 깃대봉과 장안산 그리고 백화산을 끼고 금곡리는 수락봉, 금덕리는 압곡봉, 송천, 월강리는 깃대봉 아래 있어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속하나, 개안평야(개안들)라고 하는 눈에 띄는 옥야십리(沃野十里)도 있어 큰 분지를 이루고 있다.

계남면은 장안산, 싸리재, 봉화산, 법화산, 방아재, 백화산, 등이 있는데 이 역시 산악지대에 속한다.

장수읍의 경우는 장안산, 사두봉, 신무산, 개복산, 팔공산, 봉황산, 타관산, 마봉산, 수분치, 싸리재 등 고산이 대부분이며 천천면 역시 법화산, 봉화산, 성수산, 국사봉, 매봉, 밤재, 천반산 등의 고산에 둘러싸여 산악지대다.

산서면의 경우는 팔공산, 영대산, 사계봉, 상단산, 개복산 건지산 등 고산이 둘러 있으나, 광활한 준 평야지(平野地)를 이루고 있다.

번암면은 장안산, 백운산, 월경산, 봉화산, 서리봉, 사치재, 상단산, 수분치, 사두봉, 감투봉, 속금산 등의 고산에 둘러싸인 고산지대이다. 이렇듯 장수군은 군 전체면적의 80%(405,095,907 m²) 가량이 임야인 산악의 지형을 이루고 있다.

가. 산지(山地)와 구릉(丘陵)

장수군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속하므로 우선 산지(山地)와 구릉(丘陵)을 구분하기에 앞서 산지 역시 고산지(高山地)와 저산지(低山地)로 구분하고 농경지로 구분해야 할 것 같다. 고산지인 높은 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저산지라 하는데, 저산지는 일반적으로 밭작물과 과수 농작을 할 수 있는 산지를 말하고 저지대(低地帶)는 농경지대인 구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먼저 계북면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에 속하기 때문에 농경지는 양악, 원촌 그리고 어전, 매계에 농경지가 다소 있을 뿐이다.

장계면은 명덕리 일부에 농경지가 있고 삼봉리에서 펼쳐진 농경지는 장계면 전역 그리고 금곡리까지 연이은 비옥한 평야를 이루고 있어 이 지역을 옛사람들은 개안들이라고 불렀다. 이 뜻은 개안(開眼), 즉 눈이 열린다는 뜻인데 아닌 게 아니라 육십령 굽이굽이를 돌아 금정마을 입구 개안들에 들어서면 옥야십리(沃野十里)가 한눈에 들어오니 눈이 열릴 수밖에 없어 들이 넓다는 말이 지명으로 변한 듯하다.

계남면은 사벽(四壁)이 산으로 병립하였으나 싸리재에서 유천을 따라 주변은 십리옥야의 농경지를 이루고 있다.

장수읍은 노곡, 동촌, 두산, 개정, 수분, 용계, 송천, 노하, 선창리를 비롯한 장수 전역이 중 평야를 이루고 있다할 것이며, 대성리와 식천리에도 다소의 농경지가 있다.

천천면은 장판, 월곡, 남양, 삼고, 봉덕, 춘송리까지 천변을 따라 형성된 농경지가 있으며, 연평리 평지 하부에 농경지와 신기하부에 약간의 농경지가 자리하고 있다.

산서면은 장수군에서 제일 좋은 농경생활의 조건을 갖춘 농경지가 있으며 기온도 장수와는 달리 높아서 좋은 경작 조건을 가진 농경지대다.

번암면은 동화, 죽림, 국포, 사암, 노단, 논곡 등지에 농경지가 약간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장수군의 지형은 고산지대이며 구릉지이다. 여기에 약간의 농경지를 조성하였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지형상, 기후상 농사 짓는 환경에는 비교적 적합하지 않는 고장으로 보아야 옳을 것 같다.

나. 하천(河川)

산맥과 강의 줄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른다. 쉽게 말하자면 높은 게 산(山) 이요, 낮은 게 계곡이다. 계곡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산과 하천(河川)으로 구분하지만, 사실 산과 물을 떼어 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산이 있으면 물이 있고 산 따라 물이 흐르기 때문이다. 장수의 산근(山根)을 보면 덕유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덕유산은 백두대간을 이루는 대산(大山)이다.

덕유산 일면(一面)은 무주, 일면은 장수, 일면은 경남 함양, 일면은 거창군에 위치하고 있다.

계북면의 산세와 수세를 보면 남덕유산에서 산이 근원하여 동쪽에서 남쪽으로 산세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수세 또한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다. 덕유산 골짜기인 토옥동에서 발원한 물줄기는 용연정을 지나 양악의 옥야를 적셔주며 서쪽으로 흐른다. 솔고개재 이남의 수세 역시 문성수와 어전리에 서 합세해 십리옥야를 적셔주고 서남향하여 매계 천에 이르러 양수가 합세하며 압곡수와 나치수가 다시 합세하여 농소 문성의 원수와 매산 하에서 합수해 월현마을 앞을 지나 서북향 한다. 다시 말하자면 산세도 수세도 동출서류(東出西流)한다.

장계면의 수세를 살펴보면 덕유산에서 발원한 원수는 명덕리 동명마을을 지나 평지에 이르고, 할미산 장군봉에서 발원하여 외룡계곡을 지나 양삼에 이르며 동명수와 합세하여 서남으로 흐른다.

육십령 계곡수는 서향하여 명덕물과 합세 장계천에 이르고 무룡궁재의 수맥은 남출북류장곡(南出北流長谷) 이십리(二十里)를 흘러 명덕수와 합세 장계천에서 유천수와 다시 합세하여 서쪽으로 흐른다.

계남면의 수세는 장안산 원수와 싸리재 원수가 화음리 소재지 유천에서 합수하여 북으로 흐른다. 장계천에서 명덕 오동리에서 흐른 물과 합류하여 북행하고 무농리 앞에서 금덕리에서 흐른 원수와 합세하여 흐르다 금곡리

앞에서 금곡수와 합류하여 서북향 한다.

장수읍의 하천은 동남출하여 서북으로 흐른다. 삼가동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흐른 물은 가치동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장수읍 노곡리 대리에서 합류되어 서행하고, 또 장수읍 동촌리 황정골과 밀목재에서 발원한 물은 남출북류 서출동류하여 개정리에서 합류해 북향으로 흐르고, 청상뜸에서 발원한 물은 남류해 봉황산에서 발원하여 송천리를 지나 동류한 물과 합류해 다시 동류하여 양수간에서 노곡, 동촌, 두산 물과 합류해 북향 왕대리 앞을 지나게 된다.

덕산리는 장수읍 지역이나 강 유역이 금강과 섬진강과의 원류 관계로 유역은 전혀 다른데, 장안산 산정에서 발원해 상구동을 거쳐 덕천암을 지나고 노치에서 발원하여 남류해 흐른 물은, 지승에서 합류해 서행하고 법원동에서 발원 서행하는 물과 연주리에서 합류, 원덕산에 이르고 다시 서류하여 용소에 이른다. 같은 장수이면서도 하천의 유역 면에서는 섬진강 원류로 흐른다. 장수천에서 북행한 물은 장판리에 이르러 왕여봉에서 발원한 물이 동북향하여 장척마을을 지나 장천수와 합류하고 선주봉에서 발원한 물은 지황동을 지나 월곡리 반월마을에서 장천수와 합류, 다시 북행한다.

선각산, 덕태산에서 발원하여 비룡과 상리, 중리, 하리, 내기를 지나 남양리 이방을 거쳐 장천수와 합수한 원수는 다시 북쪽으로 흘러 수월산에서 발원해 정동, 중동, 삼장마을을 지나 원수와 합해지고 춘송리에서 춘동수와 합류해 다시 서북향하여 용광리에서 계남, 장계면(面)의 물과 합류해 북으로 하루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제법 강(江)의 형태를 갖추어 북으로 흐른다. 그러다 오봉리 쌍암마을 하단에서 다시 계북 물과 합류하고 다시 북행하여 신기마을에서 연화동 물과 합수하여 북으로 흐르게 된다.

산서면의 수세는 동북출하여 서쪽으로 흐르는데 갈무봉과 고듬치 재에서 발원한 수맥이 서류하여 백운평야를 관통하면서 마하치 물과 합수해 동화리에 이른다. 개치와 말치에서 발원한 물은 오성리 쌍계리를 지나 이룡리를 거쳐 신창리에서, 영대산과 칠봉산에서 발원한 물은 오산을 지나 신창리에서 합류 서행한다. 때문에 산서지역 원수는 세 곳에서 발원하지만 나가는 곳은 두 곳이라 하여 삼득양파(三得兩派) 지역이라고 한다.

번암면의 수세는 사방에서 물이 발원하여 노단리에서 합수하여 흐르기 때문에 수량도 강세를 이루고 물이 맑으며 급류가 많고 경사도 심한 편이다. 무룡궁재에서 발원한 물은 장안산, 백운산 같은 심산계곡을 흘러 삼거리, 광

대동, 원지지, 상동, 갈배기, 하동, 미골, 죽림리를 거쳐 노단리에 이르고, 장안산 노치에서 발원해 덕산리 용소를 지나 번암면 사암리 방화동과 원사암, 상임, 하임신, 범골물을 합수해 죽산리에 이르고 수분치에서 발원하여 교동리, 상교, 금천을 지나 국포에 이른다.

팔공산에서 발원한 물은 필덕, 구암, 식천을 거쳐 국포 도장골을 거쳐 수분치 물과 합류해 동향으로 흐르다 죽산리, 대성방마을 물을 합하여 죽산리 앞에서 용추 물과 합세하고 다시 동남향으로 흘러 동화천 물과 합수 서행하는데, 논곡을 지나 대론리 마을에 이르러 사치산성에서 발원한 유정산 물과 춘강정에서 합류 서행하여 남원 요천으로 흘러간다.

다. 옥야(沃野)



앞서 밝힌바와 같이 장수군 지형의 80%가 산악지대라보니 옥야평야라 할 평야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나마 장계면과 계남면 일부 그리고 장수와 산서면에 다소 넓은 지역의 농경지가 있어 옥야 평야라 칭할 뿐이다.

장계면의 경우, 삼봉리 금정마을 앞에서 시작된 평야 같은 농경지는 금곡리 앞까지 이어져 제법 광활한 면적의 옥야평야를 이루고 있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계남면의 옥야를 구분하자면 가곡, 장안, 궁양의 3개리가 벽남(碧南)천의 병목 안에 있어 그 이름을 내동(內洞)이라고 하며, 하나의 별지가 형성되듯 내동 뜰과 유천수가 중심을 통과하면서 양편으로 옥야를 형성하였다.

장수지역의 옥야는 노곡리와 동춘리를 1개 지역으로 보며 이 지역을 옥야 십리라 하고 신천리, 노하리, 장수리 하단부도 하나의 옥야이며 송천리, 용

계리, 수분리, 개정리, 두산리, 관내의 모든 들을 옥야라 하여 3개 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대개 하천변에 위치한 농지는 비옥하고 수리조건도 풍부하나 산을 의지한 상당부분의 논은 기후가 냉하고 영농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한 부인 못할 사실이라 하겠다.

천천지역은 계북보다 다소 나은 편으로 춘송리에서 봉덕리, 삼고리 하단을 한 지역으로, 가장 넓고 비옥한 옥야라 할 것이다. 관수 조건과 토질이 양호하여 천천면의 대표적인 농경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산서면은 6개 경작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운, 학선, 마하 지역을 동일지역으로 보며 오산, 신창을 동일지역으로 보고 동화, 이릉, 건지 등을 동일지역으로 쌍계, 오성을 또 한 지역으로 사상, 하월지역을 한 지역으로 봉서리를 한 지역으로 본다. 산서지역은 비교적 토질이 양호하고 기후도 온화하여 이모작 영농에 좋은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변암면의 경우는 총체적으로는 토양이 비옥하다. 농토의 면적에 비해 어느 면보다 수량이 풍부해 영농조건이 좋은 편이다. 옥야십리는 대론, 논곡, 원촌, 하노단지역이 옥야십리에 속한다 할 것이다. 결국 장안산에서 팔공산까지의 분수령을 중심으로 볼 때 분수령의 남서지역인 변암, 산서는 수분령이 북보다 기후적으로나 토질로 보나 영농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겠다.

2. 토양(土壤)

장수지역은 1천m 이상의 높은 산들이 병립(屏立)해 있고 토옥동 계곡과 대곡계곡, 용추계곡, 지지계곡, 장안계곡 등 계곡의 길이가 20리 혹은 30리나 되는 계곡이 많다. 지형은 화강암으로 형성되어 토심(土深)이 척박하며 산성토양이다.

계곡의 물 역시 철분이 많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농작물과 일반 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원인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토심이 척박하고 산성토양인데다 산악지대이다 보니 생물이 건재하지 못할뿐더러 이상 저온현상까지 자주 나타나 농작물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일반 농작물의 경우 비닐하우스 재배를 제외하고는 일반 영농은 평야지역에 비해 재배가 쉽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지형적 자연적 조건에 맞은 영농을 하려면 이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작물로 약초, 원예, 목축업 등이 알맞다는 학계의 보고다.

현재 장수사과는 고랭지 사과로서 그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장수 한우 역시 고랭지에서 자란 기후조건으로 인해 고급육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까닭은 고랭지에 알맞은 품종을 선택한 결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 지각(地殼)의 형성(形成)

이 지역의 지표를 관찰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 면적의 50% 이상이 검은 표토(表土) 밑에 암반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천m 이상 고산들의 표토 층을 분석하면 10~15cm 내외의 표토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척박하고 지대에 따라서는 암반이 노출된 지역도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 지역이 장년기적(長年期的)시기에 왔다고 한다. 또한 산상과 산하 역시 장년기적 연기(年期)에 왔다고 하는데 산하는 암석층의 표토가 천수에 의해 하류로 이동되어 산하 계곡 역시 암반 위에 청수가 흐를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 산 하부 계곡에서 퇴적층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장수읍지역의 조사²⁾를 참고하자면 지하 2m를 굴착하였을 때 상단부 30cm까지는 비옥해 보이는 검은 표토였고, 60cm 정도까지는 검은 표토에 천변사리가 혼합되어 있는 반면 60cm이하에서는 검은 흙에 하천 모래가 혼합되어 있었으며, 1m이하에서는 하천의 모래와 자갈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하 층은 마사였고 그 밑으로는 암반층이었다는 것이다.

장계면 장계리 장계천 이북 중간부도 동일한 지질이라는 결과³⁾다. 다만 천천면 연평리 평지마을 하부 6만평 정도의 논들과 변암면 대론리 대론 들판은 흐르는 하천 수에 의한 퇴적평야이며, 산서면의 천변 역시 천수 퇴적지인데 퇴적지는 풍화작용에 의해 이루어진 퇴적지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해 주듯 장수지역의 지각현상은 유년기적(幼年期的)지형에서 장년기적(長年期的) 시기에 이르는 동안 풍화작용에 의하여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유출되어 퇴적 형성된 지역인 까닭에 많은 지각 변동은 찾아보기 힘든 지역이라는 것이다.

4. 산맥(山脈)과 동리(洞里)

산맥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듯 뻗어 평지를 이룬 곳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우선 산맥의 흐름을 설명하려고 한다. 먼저 남덕유산의 일맥(一脈)을 살펴보면, 남덕유산(1,508m)의 주된 세력은 남향으로 흐르고 삼치(三峙)는 동에서 서로 향하면서 계북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1984년 장수축협 신축 공사 굴착 현장 때

3) 1981년 장계리 통신공사 작업 때



덕유산 큰 줄기는 남향하여 육십령에 이르고, 무룡궁고개에서 장안산이 다시 기봉(起峰)하는데 무룡궁 한 줄기가 서북향하여 백화산이 기봉하자 그 아래에 마을이 형성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삼봉리 남산마을이며, 남서쪽으로는 계남면 호덕리와 화음리 고정, 한거, 기산, 조곡, 화산마을이다. 다시 장안산이 서향하여 장안, 가곡, 신전, 화양, 침곡리가 형성된다. 그리고 노치는 서북향하여 장수읍 노곡리가 형성되고, 여세가 관주산에 이르다 다시 서남향하여 동촌리, 두산리, 개정리, 덕산리가 생기고 다시 서쪽으로 수분재에 이르러 기봉, 신무산이 되고, 서편은 식천리, 다시 북향하면 용계리가 되어 잣고개(尺峙)에 이르고 다시 기봉하니 노령의 뿌리가 되는 팔공산이 된다. 팔공산에서 분지한 줄기는 서행하니 대성리 전역이 되고, 북향한 한 줄기는 타관산이 되고 다시 한 줄기는 서쪽으로 행하여 송천리 용추동 구락리가 생겨나도록 했다.

타관산에서 북쪽으로 향한 일지는 선각산 덕태산으로 향해서 천천면 장판리 장척, 비룡리 상리, 중리, 하리, 신평, 남양리 이방, 내기, 돈촌, 삼고리 삼장, 중동, 봉덕리 검덕, 고금, 춘송리 송탄, 새재, 장양, 용광리 용신, 연평리 연화, 부연마을을 형성하도록 했다. 노치의 서행 일맥은 봉화산에서 다시 일지가 서북향하여 월곡의 반월, 박곡, 운곡, 춘송마을이 형성되었고, 노치에서 서행한 시루봉 일맥은 천천면 오봉리 쌍암 마을에 이른다.

덕유산일지가 서향하여 깃대봉을 지나 솔고개재에 이르고 솔고개재에서 기봉한 일지가 서행하여 천천면 오봉리 옥자동과 평지, 신기마을 등을 형성토록 했다.

팔공산에서 서행하여 갈무봉을 지나 남행한 일지가 산서면 마하리 원흥, 평촌, 오성리의 강치, 강정, 개치, 방화, 등동, 성재, 쌍계리의 마평, 양신의 양촌, 신평, 건지리의 월호, 진전, 동화리의 능곡, 동촌, 등석, 봉정, 괴정, 시장의 본동, 교동, 면동, 상동이 있고, 갈무봉에서 남향한 일맥이 쌍계산에 이르러서는 서향하여 사상리 사창, 당가, 당동, 가동에 이르고, 신창리 대창, 소창, 신평, 용암마을이 생겼다. 다시 남향하여 봉서리 봉서마을이 있고 사상리에서 북향하여 이룡리 이룡마을이 있다. 팔공산 갈무봉에서 서행하면 백운리 신월, 구창마을이 있다. 갈무봉은 다시 서행하여 학선리 구암, 동고, 압곡, 용전에 이르며 갈무봉이 서향해 영대산에 이르면 그 아래 동화리 능곡, 등석, 봉정이 있다. 영대산이 서행하여 오산 칠봉에 이르고 칠봉에서 남향하면 오산리 월강, 초장, 하오마을이 있다.

장안산 일맥이 남행하여 어치에 이르고 어치에서 서향하여 남쪽을 따라 지지리의 원지지, 광대, 삼거, 동화리 상동, 하동, 죽림리의 상평, 하평이 있다. 수분치에서 남향한 일맥이 국포리 감투봉에 이르면 좌편으로 사암리 사암마을, 임신마을의 상임신·하임신마을이 있고, 따라 내려가면 죽산리 원죽산과 대성방 마을이 있고 우편으로는 국포리의 국포마을과 도장·원북마을이 있다.

팔공산에서 남향한 일지 개복산과 상단산은 장수읍 상단, 산서읍 쌍계리와 번암면 국포리를 접하는데, 서쪽상단에서 동향하면 번암면 국포리 도장마을이 있고 다시 남향하면 죽산리 대성방 마을이 나온다.

신무산에서 남향하면 교동리 금천, 상교, 하교가 있고 국포리의 상북, 하북, 도장, 원북 등이 나온다. 팔공산 갈무봉에서 남향한 산세는 남원시 산동면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상단산에서 다시 동남향한 산맥은 동으로 진행하여 매봉재에 이르면 원노단리와 하노단이 있고, 수세를 따라 내려가면 다시 대론리 원대론, 신원, 수척 등이 나온다.

덕유산에서 장안산과 백운산으로 분지하여 봉화산 줄기를 지나면 번암면 노단리의 원노단, 하노단, 두견, 시동강, 신기 등을 이룬다. 두동상단에서 서향하면 남원시 아영면 상단을 지나서 운봉읍에 이르고 우편으로는 유정리 만항, 남양, 구선, 사치가 나오며 북향하면 논곡리 주암, 성암에 이른다.

5. 기후(氣候)

이 지역의 기후는 총체적으로 냉하면서도 변화가 심한 곳이다. 북위권의 세계기온인 17℃와 우리나라 기준인 13℃에도 못 미치는 11.2℃에 머물러 있어 좌표 상으로 보더라도 북위 35도의 위치에 있지만, 실제 기온상태를 보면 37℃나 38℃의 위치의 기온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기상학 이론으로 보면 대기(大氣)가 100m 상승할 때마다 1℃씩 내려간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해변의 기류가 강을 따라 4~500 고지인 장수 지역까지 올 때는 3~4℃가 낮아진다는 결론이다. 대기가 지상으로 100m 상승할 때 1℃씩 하강하기 때문에 400~500의 고지대인 장수지역은 높이가 0m인 군산포구, 하동포구, 김해포구에 비해서 기온이 매일 4℃ 내지 5℃가 낮은 것은 당연하며 실제적으로 나타난 기온의 차이다. 실제 이곳 장수에 비해 군산이나 하동 또는 김해는 4℃ 내지 5℃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서로 다른 기류

들이 고산 협곡에 와서 서로 부딪치는 현상을 액화현상(液化現象)이라고 하는데, 이 현상으로 인해 때 아닌 여름에 서리나 우박의 피해를 입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바로 이 현상이 동서 남해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 고산상공에서 만나 하강하는 순간, 저온현상으로 변하는 자연적 액화현상이 고산지방 특히 우리 장수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액화현상의 실체로 고산지방의 저온 현상을 입증하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7 월이나 8월에 자주 나타나는 이상 저온 현상과 우박, 그리고 늦은 봄에 내리는 서리 역시 이상 기온의 변화에서 오는 액화현상의 증거이기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냉해 피해에 약한 작물을 계속 고집해 심는다는 것은 시대적 논리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도 안 될 것이므로 체계적이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와야 하며 거기에 맞도록 체질도 개선되어야 하고 대비책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위 35℃에 위치한 우리장수는 평균 기온이 11.2℃인데 반해 같은 북위 35℃에 걸쳐 있는 세계의 기온은 17℃이고 북위 35℃인 전북의 같은 위치 13℃에 비교해도 우리 장수지역 기온은 너무 낮다. 다만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가속되므로 인해 우리 장수지역 또한 예년에 비해 많이 더워지고 있는 현상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에 대한 항구적인 대비책 역시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믿는다.

* 참고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온을 밝혀둔다.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00	-1.9	-2.5	3.5	9.7	15.3	20.1	23.5	23.1	17.2	11.3	3.9	-1.2	10.17
2001	-4.9	-2.3	2.7	10.7	16.5	20.6	24.2	22.9	18.2	12.9	4.0	-1.7	10.32
2002	-0.3	-0.2	5.6	11.9	15.4	19.5	23.1	22.3	17.6	10.1	1.9	-0.1	10.57
2003	-4.8	-0.8	4.1	11.2	16.5	19.3	21.1	22.1	19.2	10.4	7.6	-0.1	10.48
2004	-3.5	0.3	4.3	10.6	15.8	20.2	23.8	23.2	18.4	11.0	6.2	0.7	10.92
2005	-3.6	-2.5	2.4	11.5	15.6	20.8	23.3	22.8	19.9	11.1	5.3	-4.7	10.16
2006	-1.3	-1.2	3.8	9.5	16.0	20.1	22.0	24.1	16.5	13.6	6.5	-0.5	10.76
2007	-1.8	2.0	5.3	9.4	16.1	20.3	22.3	24.2	19.4	12.0	4.1	0.5	11.15
2008	-2.3	-3.2	4.9	11.2	15.8	19.4	24.8	22.6	19.3	13.0	5.1	0.1	10.89
2009	-3.5	2.1	5.3	10.6	16.4	20.3	22.4	22.9	18.7	12.3	5.7	-0.8	11.03
평년값	-2.7	-1.2	3.8	10.2	15.4	19.7	23.1	23.1	18.0	11.1	5.1	-0.6	10.45

6. 우량(雨量)

우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에 속한다. 이는 앞서 기후에서 밝힌바와 같이 지리적 특성에 그 원인이 있다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백두산에서 시작된 준령이 국토 중심부를 통과하면서 동해 쪽과 서해 쪽의 기후를 갈라놓았는데, 이 곳 장수에서는 팔공산, 지리산의 분맥지대인데다 장안산, 덕유산 같은 1천m 이상의 고산이 있어 금강, 낙동강, 섬진강 줄기를 따라 올라온 습한 기류가 팔공산, 장안산, 덕유산에 부딪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멈춘 채 비로 변하고 겨울에는 눈으로 변해 내리는 까닭에 우량이 많은 이유 중 하나라 할 것이다.

측정한 결과를 보면 1월, 2월, 3월에는 대략 17~119.8mm(월평균 63mm) 내외가 내리며 4월, 5월, 6월에는 적게는 47mm, 많게는 103.6mm(월평균 90mm) 내외가, 7월, 8월, 9월에는 188.5~461mm(월평균 332mm) 정도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며 10월, 11월, 12월에는 20~48mm(월평균 34mm) 정도가 내린다.

경상남도 함양군이나 거창군은 장수군 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고, 전라북도 남원시와 임실군, 진안군 등은 서남방에 위치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장수지역보다 비가 많이 내려야 함에도 장수지역이 더 많이 내리는 이유는 지형의 동서 기후 차이가 이곳에 와서 합쳐진데 근원을 찾을 수 있다.

* 참고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내린 이 지역의 강우량은 다음과 같다.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0	40.9	5.5	30.0	33.0	38.0	242.0	300.0	393.5	243.0	49.0	57.0	12.8	1,444.7
2001	73.8	88.8	29.4	29.5	31.0	369.0	389.5	91.0	97.0	82.0	23.5	57.0	1,361.5
2002	108.1	13.8	73.2	150.0	116.5	81.0	150.5	789.5	68.5	35.0	49.4	63.0	1,698.5
2003	41.5	50.0	49.5	245.5	156.0	157.0	749.0	420.5	264.0	18.0	33.0	24.1	2,208.1
2004	10.9	50.2	32.5	65.0	129.5	201.5	289.5	314.0	198.5	0.5	78.0	28.2	1,398.3
2005	19.1	33.8	74.3	80.0	57.5	221.0	450.0	343.5	69.0	15.5	36.0	31.9	1,431.6
2006	19.0	68.2	12.0	115.0	162.0	103.5	567.0	165.5	37.0	23.0	54.5	27.5	1,354.2
2007	17.0	54.5	119.8	47.0	121.5	103.5	188.5	347.5	461.0	45.0	10.5	47.5	1,563.3
2008	30.4	8.3	36.5	40.0	163.5	181.5	170.1	159.6	21.7	20.5	15.3	16.0	863.4
2009	20.4	67.3	34.2	45.1	151.8	139.2	597.3	95.7	32.9	48.1	29.8	47.1	1,308.9
평년값	39.5	46.3	67.1	82.9	95.0	219.1	300.2	291.1	150.7	47.4	52.8	30.0	1,422.1

제4절 읍·면세(邑面勢)와 산물(産物)

1. 장수읍(長水邑)



장수읍은 위치상으로 보면 북쪽으로는 계남면과 천천면에 접해 있고, 남쪽으로는 번암면과 산서면, 서쪽으로는 산서면 일부와 진안군의 백운면, 성수면과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계남면의 일부와 번암면의 일부를 접한 장수군청의 소재지로서 행정과 치안의 중심지이자 요지이다.

가. 인구(人口)

장수읍의 인구는 7,087 명(남 3,548 명, 여 3,539 명)으로, 이 중 65 세 이상 인구는 1,447 명(남 586 여 861 명)이며 세대 수는 2,967 세대이다.⁴⁾

나. 면적(面積)

장수읍의 총면적은 101.82km²(장수군의 19.1%)이며, 경지면적 1,851.64 ha로 이 중 전(田)은 746.17 ha이고, 답(沓)은 908.75 ha이며, 과수원은 196.72 ha이다. 1읍 40개 행정리(行政里)와 13개 법정리(里) 그리고 85개 반(班)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식량작물(食糧作物)

장수읍의 주된 식량작물의 생산 품목은 쌀이다. 일반식량작물로는 잡곡류는 조, 옥수수, 콩, 팥, 감자, 고구마이며, 채소류는 고추와 깨, 마늘과 배추 등이 있다.

4) 2009년 말 기준

1) 미곡류(米穀類)

옛날에는 보리가 쌀과 더불어 식량의 주된 곡식이었으나, 지금은 거의 재배를 하지 않고 있다. 재배한다 해도 주된 식품으로서가 아니라 식생활개선 용이거나 혹은 웰빙식품으로 분류되어 소량(小量)을 재배하는 게 대부분이다. 보리를 재배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리 수매가격의 하락과 더불어 보리의 수매인식 부족도 있다. 2007년도 보리수매는 산서면에서만 이루어졌을 정도다. 그 양도 겨우 4,000kg에 그쳤다.

장수읍의 주된 생산품목은 쌀농사로 미곡 생산면적은 644 ha로 고령지라는 지역의 특수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다소 있었으나, 지금은 고령지에 알맞은 개량된 벼 품종을 심어 다수확이 가능하다. 매년 생산된 쌀은 지역민의 식량을 대체하고도 남아 잉여분은 지역농협과 상인들을 통해 외부로 판매하고 있어 장수의 중요한 수입원의 하나이기도 하다.

2) 잡곡류(雜穀類)

잡곡은 주식인 쌀을 제외한 곡식 즉, 옥수수, 조, 콩, 팥, 기장 등을 잡곡이라 하는데, 옛날에는 식량차원에서 재배를 하였으나 요즘은 식생활개선에 따른 웰빙식품으로 필요에 따라 자급자족하고 남는 소량은 판매를 하기도 한다. 완주군 봉동면처럼 생강 한 품종만 판매를 목적으로 집중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3) 채소류(菜蔬類)

장수읍의 채소류 전체 재배면적(198.19 ha) 중 고추 재배면적(55.26 ha)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임실과 진안 고추와 함께 장수고추 또한 고령지 고추로서 인기가 높다보니 농가 소득의 중요 자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재배면적 또한 비닐온상은 물론 노지재배까지 복합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그 다음 재배 순위로는 마늘과 파, 양파 순으로 마늘과 파는 자급자족 수준이나 양파는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대부분이나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해 한 품종만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없는 게 현실이다. 엽채류 즉, 상추나 배추, 무는 대부분 농가의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생산되었으나 최근 군의 농가에 대한 지원의 증가로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5) 2008년 기준

총 재배면적 112. ha(배추 102.32 ha, 무 14.3 ha, 상추 5.88 ha)로 작년에 비해 3배정도 증가되었다.⁵⁾ 이 곳에서의 엽채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군의 농가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장수의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채소의 품질이 우수하여 높은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다만 강원도 고랭지 채소재배면적이 방대하다 보니 강원도 고랭지 채소의 풍·흉작 여부와 출하량에 따라 그 가격이 현저하게 다를 수도 있어 재배 농가에서는 강원도 채소가 흉작이어야 채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란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있을 정도다.

라. 경제작물(經濟作物)

1) 엽연초(葉煙草)

엽연초는 옛날부터 이 고장의 중요 재화 획득의 작물 중 하나였다. 지금은 대다수 농가가 일손부족으로 인해 손을 떼고 거의 몇 농가만이 엽연초 생산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그 주된 원인으로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현상이 가져다 준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2) 잠업(蠶業)

누에고치 산업인 잠업은 산업공해와 생활 공해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만이 생산이 가능한 특수 산업 중 하나다. 예전에 장수지역의 잠업이 활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우선 뽕나무밭이 많았고, 자연이 깨끗했으며 그에 따른 공해가 전혀 없었고, 농약 사용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토록 활발했던 장수지역의 잠업이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함께 잠사가격의 폭락과 사용량의 저하로 양잠농가의 수가 줄게 되고, 농작물에 대한 농약사용이 증대되면서 양잠산업은 더욱 어렵게 되어 사양산업으로 치닫게 되었다.

지금은 완전 사양산업이 되다시피 했으나 섬유업의 고급화 천연소재의 의류 사용증가에 힘입어 양잠업의 부흥을 시도해보려 노력하지만, 농가의 기피현상은 여전하다.

이는 엄청나게 늘어난 과수 산업의 증가에 따른 농약사용이 주원인으로 잠업의 재기를 불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른 일손부족 현상 또한 한 몫을 한다하겠다. 이와 같은 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양잠산업의 부흥은 어려울 전망이다.

3) 약초(藥草)

약초는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자연산 약초와 논이나 밭 혹은 들에 심어 재배하는 약초로 구분할 수 있다. 산이나 들에서 자란 자연산 약초를 수집해 판매하는 농가는 거의 없고, 일부 농가에서 논이나 밭에 심어 수집상을 통해 판매해 수입원을 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마저도 극소수에 불과해 통계상 수치가 나타나지 않는다.

참고로 산에서 자라는 약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산삼, 지초, 당귀, 천궁, 길경, 작약, 시호, 산약, 천마, 승마, 황계, 용암, 창출, 백출, 우실, 속단, 세신, 남승, 초호, 반차, 오미자, 유비자, 퇴사자, 차전자, 복분자, 우방자, 음양곽, 인동, 목통, 해용피, 황경피 등 500 여종이 자생하고 있다.

논이나 밭 또는 들에 일부러 뿌리거나 심는 약초로는 인삼, 지초, 당귀, 천궁, 백지, 길경, 산약, 시호, 황금, 하수오, 사삼, 천마, 작약, 목단, 음양곽, 지모, 황백, 산수유, 대초, 만삼 등이 있으나, 위 약초들의 재배는 지리적 여건이 좋은데도 경험부족과 판로를 찾지 못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일손부족과 값싼 중국산 한약재에 밀려 농가의 주 수입원으로 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인삼의 경우는 재배 농민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어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으나 거의 대부분 진안과 무주, 금산의 인삼 전문재배 농가들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

4) 과실류(果實類)

동국여지승람 장수 문물편(文物編)을 보면 장수의 생산물 중에 과수가 들어 있다. 이는 오랜 세월이 고장이 과수생산의 적지로 인정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래서인지 몇 십년전만해도 대구농금을 알아주었으나 지금은 일교차가 큰 장수의 기후적조건과 고랭지라는 지리적 조건이 맞아 장수사과하면 그 품질을 인정할 정도의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초기에는 밭을 이용해 과수를 재배하는 소규모의 농가가 있었으나, 군의 적극적 지원과 기술개발의 향상 그리고 과수농가의 노력으로 산야를 개발하고 재배하기에 이르렀다.



장수사과

또한 과수재배농가의 증가와 소득증가로 장수사과의 전망이 밝다.

【과실류 생산현황】

(2008년 말, 단위 : ha, M/T)

합계		사과		배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536.9	9,903	530.9	9,795	6.0	108.0

마. 양봉(養蜂)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장수 토산물 편을 보면 ‘벌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오랜 세월이 지역의 토산품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겠다. 벌꿀은 고산지대 특히 공해가 없는 지역이어야 함은 당연하고, 야산이라도 자연산 꽃이 많아야 꿀의 수확량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개간산업에 따른 산지감소(山地減少)와 농가의 농약사용으로 인해 양봉산업 또한 사양산업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동하는 외지인의 양봉사육으로 인해 토종인 한봉(토봉)은 갈수록 그 수가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특별한 양봉 부활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바. 어류(魚類)

어류는 금강 상류지역으로 하천에는 장어, 메기, 왕등어(참갈겨니), 열목어, 모지, 풀무치(밀어), 추어, 양소리, 꺾지, 자가, 중치, 자래 등이 자생하는데, 농약 사용으로 인한 어류의 멸종과 외래종의 수입으로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생의 조건에서 자라는 특수어종은 보기가 매우 힘들다. 인공적 담수(淡水)로 고기를 키우는 양어장(養魚場)이 있기는 하나 기술문제와 자본부족으로 인해 활성화된 곳이 없다. 앞으로 빙어, 송어, 추어, 우렁 등의 양식지로서는 타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도해 볼만도 할 뿐더러 장래성도 매우 밝다할 것이다.

사. 축산(畜産)

얼마 전 만해도 농가에서는 재래식으로 한우 1~2마리 혹은 3~4마리를 사육하는 형태였으나, 지금은 장수군의 적극적인 후원과 목축장려 시책에 힘입어 대량사육 농가가 점점 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수 용계리 뒷산에 자리하고 있는 장수축협외의 대단위 방목장 한우는 장수 한우의 산실이자 증표일 것이며, 이곳에서 생산된 송아지를 농가에 분양해 농가의 수입원이 되도록 하는 장수군의 목축장려 정책은 장수군만의 특색있는 사업으로 청정지역 이미지를 확고히 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틀림이 없으리라 믿는다.

목축업 중 특히 한우의 사육농가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양돈과 개 등의 가축 사육농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판매가격의 저하와 사육인의 고령화, 사료대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1~2마리 키우던 소규모 사육농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신 닭이나 오리처럼 사육농가 수는 줄고 사육마리수가 증가하는 기업형 또는 전문적 사육농가는 늘고 있는 형편이다.

【장수읍 축산 현황】

(2008년 말, 단위: 가구, 마리)

가축명	한육우	돼지	닭(수수)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	꿀벌(군수)
농가수	234	11	5	33	7	10	215	1	12
두수	5,353	17,936	170,250	759	68	109	1,051	2,000	320

아. 교육(教育)

교육은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이 있다.

자. 문화(文化)와 유적(遺跡)

문화시설로는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장수 의암공원 안에 자리한 장수 한누리전당이 있으며, 유적으로는 함미산성, 방어산성, 장수향교, 의암사당, 정경손비 등이 있다.

차. 광산(鑛山)과 공장(工場)

광산은 팔공산 금광, 개동산 곱돌광산, 선창리 곱돌광산, 송천리 규석(珪石)광산이 있고 공장으로는 대성리 석기(石器)공장, 장수읍의 석기공장 개정리 목재공장(製材所) 등이 있다.

카. 관광지(觀光地)

관광지로는 의암 주논개사당, 장안산 군립공원 내 덕산 용추소의 가을단풍, 단평비폭 등을 들 수 있다.

덕산용추 가을단풍



2. 산서면(山西面)



산서면은 서로는 임실군 지사면과, 남으로는 남원시 보절면과 덕과면, 동으로는 장수읍과 번암면 국포리와 경계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진안군 성수면과 접해 있다. 장수읍 소재지에서 보면 남서향에 위치한 산서면은 장수로부터 24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장수군 1읍 6개 면 중에서 기후, 토질, 지대 등이 농촌 환경으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가. 인구(人口)

인구는 2,605명이며, 남자 1,291명, 여자 1,314명으로 그 중 65세 이상의 인구는 총 880명(남 350명, 여 530명)이다. 세대수는 1,180세대이다.⁶⁾

6) 2009년 기준

나. 면적(面積)

산서면의 면적은 47.75km²(장수군의 8.95%)이며, 경지면적은 1,352.7ha(답 1,097.24ha, 전 255.46ha)이며 과수원면적은 12.58ha이다. 그리고 하천은 909,089m²이다. 1면 34개 행정리와 14개 법정리 그리고 72개 반(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리재배



다. 식량작물(食糧作物)

1) 미곡류(米穀類)

산서지역의 주산물은 쌀이다. 이 지역은 밭에 비해 논이 거의 4배 정도가 많으며, 토질도 비옥하고 수리시설도 양호하며, 기후 역시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쌀 농사짓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꼽힌다. 쌀이 주작목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지역은 천연적으로 서쪽과 북쪽이 높으며 동남은 광활한 평야적 분지로 기온이 높고, 토질이 비옥하여 쌀농사 뿐만 아니라 보리농사도 주산물 중 하나였었다. 예로부터 위에서 언급한 자연적 조건이 장수군의 여느 지역보다 좋고 쌀 생산량이 많아 생활이 안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된다.

2) 잡곡류(雜穀類)

산서 지역은 논에 비해 밭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논에 심는 수도작(水稻作)을 제외하고 순수 밭을 이용해 재배하는 잡곡류의 재배율은 낮은 편이다. 참고로 산서면의 잡곡 재배면적은 콩·팥 6ha, 고구마·감자 11ha 정도다.⁷⁾

7) 2008년 기준

3) 채소류(菜蔬類)

고추, 마늘, 파, 깨 등 대부분의 채소류는 가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고로 산서면의 채소재배 면적은 98.5ha(고추 74.6ha, 생강 18ha, 상추 0.7ha, 깨 9.8ha, 토마토 0.4ha) 정도이다. 채소류 중 고추재배면적이 많음은 입실과 인접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하겠다. 산서면은 토질과 기후가 좋은 조건이다 보니 채소농사가 많을 것 같으나, 채소보다는 과수인 배(梨)농사를 더 선호하여 경작면적이 많아지고 있다.

라. 경제작물(經濟作物)

1) 엽연초(葉煙草)

엽연초는 이 고장에서는 재배하지 않았으나, 몇년전만해도 농촌 경제작물의 하나로 부각되면서 재배를 시작했었다. 토질이 비옥하고 기온이 온화한 까닭에 생산된 엽연초는 품질이 우수 해 단위 면적당 소득도 높은 편에 속하나, 지금은 밭의 대부분이 작목 단지 화하여 작목별 소득 1위에서 점차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 또한 인구감소와 노령화 탓도 없지 않다고 보여진다.

2) 잠업(蠶業)

잠업은 잠업이 활발하던 1960년대에는 상전(桑田)을 조성할 정도로 대량 생산을 한 일도 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양잠의 사양과 함께 지금은 거의 생산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과수농가의 획기적 증가와 맞물려 과수원으로 전용되었고 그에 따른 농약사용의 증대로 인한 살충농약의 피해로 인해 사양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약초(藥草)

약초 역시 경작 농가가 적다. 다만 가정이나 정원에 관상용으로 심는 작약, 목단, 산수유 등이 있고, 가용이나 판매용으로 들이나 밭에 경작하는 오미자, 가시오가피, 도라지, 더덕 등이 있으나 이것 또한 건강식품으로 소상인에게 판매하여 가용에 보태는 정도일 뿐 전문으로 재배하고 생산하여 판매하는 전업농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4) 과실류(果實類)

산서 배



산서면은 장수군에서 해발(150m)이 가장 낮은 곳(소재지 기점)으로 기온이 비교적 온화한 탓에 사과 재배면적보다 배(梨)재배면적이 많다.

산서면의 경우 과실류 총 생산면적 44.3ha 중 재배면적이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토질의 영향보다는 기후여건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토질과 기후조건이 좋다보니 배 생산지로 유명한 전남 나주지역에서 출하되는 배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수한 품질의 배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배는 수확과 더불어 농협을 통한 계통출하를 하기도 하지만, 인터넷판매와 상인판매를 하기도 해 판매가 용이하여, 벼농사 수입보다 나은 종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반가울 일이다.

【산서면의 과실류 생산량】

(2008년 말, 단위: ha, M/T)

합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44.3	664.7	7.1	123.0	23.0	395.0	3.9	63.7	0.3	4.5	10.0	78.5

마. 양봉(養蜂)

양봉을 하기에는 매우 적합한 조건이나 벼농사와 과수농가가 점차 늘어나

면서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 때문에 양봉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없다. 다만 외지인들이 봄철 한 때 밤꽃과 아카시아 꿀을 채취하기 위해 양봉을 하는 하나 일시적일 뿐이다.

바. 어류(魚類)

양어는 인공담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랄 수 있으나, 양어를 하는 농가는 없다. 특히 팔공산에서 백운리쪽으로 흐르는 계곡수를 이용해 양어를 시도해 볼 수도 있으나 하는 사람이 없다. 이농현상이 가져온 산물이 아닐까 싶다.

사. 축산(畜産)

축산은 소량 사육에서 탈피해 기업양축으로 전환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대부분이 한우중심의 사육을 하고 있을 뿐 기타 가축은 대량 사육하는 농가가 없다. 환경오염과 사료 값 인상 그리고 가격하락이 그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 이다.

【산서면 축산 현황】

(2008년 말, 단위: 가구, 마리)

가축명	한우	돼지	닭(수수)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	꿀벌(군수)
농가수	231	5	4	58	2	6	226	3	14
두수	3,155	3,760	160,000	209	9	45	536	25,530	382

아. 교육(教育)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

자. 문화유적(文化遺蹟)

산서면의 문화유적으로는 조선 영조 27년(1752년) 태종이 사간 공천곡 안성선생에게 내려 준 어필 왕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은 어필각(오성리 성재 마을 소재. 지방유형문화재 제143호)이 있고, 덕곡 육려, 국현 임옥산, 삼암 박이겸, 비암 박이항, 문암 육홍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는 압계사(학선리 산76번지 소재. 문화재자료 제35호)가 있으며, 민속자료 22호와 119호로 지정된 권희문가옥과 정상윤가옥이 있으며, 전주원씨부인 정려(백운리 신흥 마을 소재)와 오성리 584번지에 있는 최윤덕 부조묘, 오성리 개치마을에 있는 송현수 부조묘 등이 있다. 특히 마하리의 원흥석불(문화재 자료 41호)은

높이 4m, 둘레 3m 정도의 거대한 화강암 석불인데 고려 중엽 이후 작품으로 문화유적의 가치가 높은 유물이 아닐 수 없다.

차. 광산(鑛山)과 공장(工場)

광산은 오산리에 금광이 있으나 현재는 폐광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공장은 현재 없으며 추후에도 공장이 들어 설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는 군마다 지정된 장소에 따로 농공단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장이라고 해도 공해와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며 지가(地價) 상승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향후 공장이 조성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카. 관광지(觀光地)

가볼만한 관광지로서는 원흥사, 영월암, 미륵암, 칠영사 등이 있으나, 옛날부터 전해오는 장수 8경의 하나인 영산영월(靈山迎月)을 빼놓을 수 없을 듯싶다. 영대산 위로 떠오르는 저녁달을 오뎬(오성리)에서 바라보면 마치 신선이 달 속의 항아선녀를 맞이하는 느낌이 드는 선경이라, 시인, 묵객이 아니더라도 한번 쯤 가을 날 보름달이 뜨면 영대산에 올라 가을 달밤의 정취에 마음껏 취해 봄도 좋을 듯싶다.

3. 번암면(礮岩面)



번암면은 장수군 1읍 6개면 중에서 가장 면적(126.06km²)이 넓은 지역이다. 동(東)으로는 함양군 백전면과 남원시 아영면과 접해 있으나, 백두대간의 줄기가 장안산을 거쳐 백운산, 월경산, 봉화산, 서리봉을 거치는 동안 그 산맥을 유지하면서 동쪽 전체를 감싸 안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산서면, 남원

시 보절면 일부와 접해 있으나 이곳 역시 상단산 줄기가 감싸고 있고, 북쪽으로는 장수읍과 접해 있으나 신무산 줄기와 수분령 재가 뒤를 막고 있어 오로지 남쪽으로만 펼쳐 있는 형상이다.

남쪽으로는 사치마율이 운봉읍과 산으로 접해 있고 남원 산동면과 접한 지역은 들판으로 뚫려 있다. 번암면은 동, 서, 북이 산으로 감싸 안고 남쪽만 트여 있는 셈인데, 이로 인해 형태가 길어 상번암, 하번암으로 나누어지기도 했다.

가. 인구(人口)

인구는 2,659명(남1,330명, 여1,329명)으로 이중 65세이상 인구는 총 847명(남317명, 여530명)이 있다. 세대수는 1,259세대이다.⁸⁾

8) 2009년 기준

나. 면적(面積)

면적은 126.06km²(장수군의 23.6%)이며 경지면적은 885.4ha(전 362.2ha, 답 523.2ha)로 답이 많은 이유는 하노단과 대론리 쪽인 남쪽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과수원은 5.5ha로 사과 경작이 대부분이다. 하천은 3,070,048.7m²로 북에서 남으로 길게 흐른다. 1면 28개 행정리와 11개 법정리 그리고 61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식량작물(食糧作物)

1) 미곡류(米穀類)

번암면은 면적에 비해 쌀농사가 적은 편이다. 상번암과 하번암의 면적당 수확량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상번암은 산간 고랭지에 속하고 하번암은 다습한 고온 들녘이기 때문이다.

보리농사는 하번암의 수도작과 상번암의 전작(田作)이 거의 대등할 만큼 생산량이 많았으나, 2006년을 끝으로 보리 생산량은 통계상 전무할 정도다. 설령 한 두 농가가 생산한다 해도 판매용 보다는 가족 건강을 위한 웰빙 식품으로 재배하는 소량일 뿐이다.

2) 잡곡류(雜穀類)

잡곡은 어느 지역보다 재배면적도 생산량도 많은 지역이다. 이는 상번암 전 지역이 산악지대이며 산지의 토양이 대단히 비옥하여 잡초만 제거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면 잘 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지지, 동화, 사암, 국포, 교동 등 산간 농지를 중심으로 콩, 팥의 농사를 지어 많은 수확하는 농가도 있다. 두류의 재배 면적은 7.0 ha이고, 고구마 감자 같은 서류는 4.0 ha이다.

3) 채소류(菜蔬類)

고추는 토질상 좋은 조건이 아님에도 많은 경작을 하고 있으며, 마늘은 장수군 관내 어느 지역보다 잘 자라기 때문에 변암 마늘은 알아 줄 정도지만, 고추에 비해 재배 면적은 그리 많지가 않다. 파와 양파는 가용 외에는 거의 재배를 하지 않고 있으며, 국포리 부근에 대단위 비닐하우스 단지를 조성해 고랭지 채소재배를 많이 하는 편이다.

변암면 채소류의 재배 면적은 다음과 같다. 2008년도 총 재배 면적 88.3 ha(배추 13 ha, 상추 9 ha, 무 11 ha, 고추 40 ha, 마늘 7 ha)이다. 변암면은 오랜 세월동안 감의 주산지로서 이름이 높았고, 그와 함께 꿀, 담배, 그리고 옷칠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려 삶을 윤택하게 한 일도 있으나, 지금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로 감으로 인한 수입은 가용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이고, 담배와 옷칠, 그리고 꿀 판매로 인해 다소 가용의 수입원이 될 정도다.

라. 경제작물(經濟作物)

1) 엽연초(葉煙草)

지지, 동화, 사암, 국포, 죽산 등지는 엽연초의 생산지라 할 만한 곳이었으나, 옛날의 명성과는 달리 지금은 일손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 가용의 수입원으로 삼아 재배하고 있을 뿐이다.

2) 잠업(蠶業)

사암리 일대는 전북에서 양잠의 적지로 지정된바가 있을 정도로 양잠산업이 활발했으나, 지금은 섬유산업의 쇠퇴와 일손부족으로 인해 잠업을 하는 농가가 거의 없다.

3) 약초(藥草)

약초 또한 특별히 재배하는 농가는 없으나, 산에서 나는 자연산 약초는 효능이 탁월할 뿐더러 품질도 우수하다. 주변 산에서 산삼도 간혹 발견되어 횡재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는 곳이 변암이다.

특히 장안산 산작약은 전국 제일의 명약으로 손꼽히지만 한 두 사람이 채취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4) 과실류(果實類)

번암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⁹⁾

따라서 기온도 비교적 따뜻한 편에 속한다. 다만 산이 많은 관계로 야산을 이용하여 과실을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다.

9) 해발 240m(소재지 기점)

【번암면 과실류 재배현황】

(2008 년 단 위 : ha, M/T)

합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56.4	780.9	52.1	708.0	0.6	14.0	52.5	402.5	0.4	6.4

마. 양어(養魚)

양어는 이 지역의 맑은 물을 이용하면 발전 가능한 작목 중의 하나이나 상류는 동화댐으로 유입되는 식수인 관계로 불가능해도 여타 지역에서는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지만 현재 사육하는 양식농가는 없다. 노단리 역동 양어 또한 외지 상인들로부터 공인받은 좋은 상품이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바. 동화댐

번암면에 있는 동화댐은 죽림리 위쪽에 위치한 댐으로 장안산과 백운산 계곡수가 지리리 20여리를 흘러 죽림리 앞 동화호에 담수된 물을 막아 취수장으로 유입시킨 뒤,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를 거쳐 정수된 물을 송수관을 통해 각 가정으로 공급하는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 만든 시설물이다.

동화댐은 1995년에 시작해 2002년까지 총 8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완공한 댐으로 총 공사비 845억 원이 소요되었는데, 댐의 높이는 70m, 길이 474m, 총 저수용량 3,200㎥로 하루 5만2천 톤의 깨끗한 식수를 장수군을 비롯해 남원시와 임실군, 곡성군의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댐의 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물 관리만 맡아하고 있다.

사. 축산(畜産)



가축이라 함은 집이나 일정한 장소에서 키우는 소와 돼지, 개, 닭, 염소 등의 동물을 말한다. 가축의 사육 방법은 농가의 필요에 따라 부업적 사육방법과 전업적 사육방법이 있는데, 부업적 사육은 소규모 가축을 키워 가용으로 쓰기 위함이지만, 가격의 하락과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사육을 기피해 옛날에 비해 사육농가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반면 전업적 사육농가는 논이나 밭 혹은 들에 축사를 지어 한우, 돼지, 개, 닭, 염소 등을 사육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우 축산 농가를 제외하고는 전업으로 축산을 하는 농가는 한 두 농가에 지나지 않는다.

【변암면 축산 현황】

(2008년 단위 : 가구, 마리)

가축명	한육우	돼지	닭(수수)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수수)	칠면조(수수)	타조(수수)	거위(수수)	꿀벌(군수)
농가수	233	18	4	65	3	4	189	6	1	1	1	248
두수	3,810	6,357	60,550	1,708	18	137	602	20,019	2	2	4	5,836

아. 교육(敎育)

교육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다.

자. 문화와 유적지

문화재 자료 제32호로 지정된 어서각(노단리1118-1번지 소재)과 백용선 조사 탄생지로 잘 알려진 죽림정사(노단리1095-1번지 소재)가 있으며 민속 자료 제21호로 등재된 장재영 가옥이 있다.

차. 광산(鑛山)과 공장(工場)

광산하면 변암면일 정도로 변암에는 광산이 많았고 활성화된 시절도 있었다. 노단 광산을 비롯해 신기금광, 뒷골금광, 두동금광, 죽림금광, 논곡금광 등 여러 곳에 금광이 있었으나, 모두 휴광 또는 폐광되고 그나마 90년대 초까지 채광되던 외밭골 광산마저 갱구가 무너져 휴광상태다.

향후 개광여부는 미지수다. 공장은 88고속도로 장수 진출로 부근에 동남 레미콘 공장이 있으며, 이 곳에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생산하고 있다.

카. 관광지(觀光地)



봉화산 철쭉

관광지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지지계곡 20여리가 있고 방화동 가족 휴가촌이 있으며, 봉화산 철쭉 군락지가 있다.

특히 봉화산 철쭉 군락지는 군락의 아름다움과 주변 경관이 빼어나 전국에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다. 봉화산 철쭉 군락지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조망의 즐거움은 동화댐의 담수와 함께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고도 남는다. 봉화산 정상의 억새를 보기 위해 가을에는 많은 등산객들이 찾아오는데, 맑은 날에는 지리산과 모악산 경남 합천의 가야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와 조망의 즐거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큰데 산을 타는 산행인 들은 겨울 산행의 묘미를 찾아 겨울에도 자주 찾는 곳이다. 철쭉은 대개 매년 5월 5일~10일 사이 만개한다.

타. 종교(宗教)

종교는 불교, 기독교가 있다.

4. 장계면(長溪面)



장계면은 백두대간이 힘차게 뻗어 남덕유산이 기봉하고, 그곳에서 사방으로 다시 뻗은 줄기가 안으로 분지를 만들고 밖으로 분지를 감싸고 있는 형국이다.

동으로는 육십령과 무룡궁을 거쳐 장안산에 이르는 동안 줄기가 감싸고 있으나, 함양군 서상면과 거창군 북상면 일부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계남면 일부와 산맥을 경계로 다시 천천면 일부와 경계하고, 남으로는 변암면 일부와 접해 있으나 거의 대부분 계남면과 접해 있고, 북으로는 산맥을 경계로 계북면과 접해 있다.

남쪽을 제외한 3면을 산이 온통 감싸고 있어 안은 커다란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면 볼수록 아늑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곳이다. 장계는 농업, 상업, 공업이 고루 형성되어 조화를 이룬 곳이다. 또한 국도 19번 선과 국도 26번 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한 곳이다.

가. 인구(人口)

10) 2009년기준

총인구는 4,727명(남 2,359명, 여 2,368명)으로 이중 65세이상 인구는 총1,134명(남446명, 여688명)이다. 세대 수는 2,027 세대이다.¹⁰⁾

나. 면적(面積)

면적은 67.75km²(장수군의12.7%)이며 경지면적은 971ha(전 374ha, 답 597ha)이고 과수원이 23.0ha이며 하천은 1,163,853m²이다.

장계면은 1면 30개 행정리와 10개 법정리 78개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식량작물(食糧作物)

1) 미곡류(米穀類)



명덕, 오동, 대곡, 망남 등 산간마을 역시 쌀농사를 짓고 있으나, 이 지역은 대개 수도작 보다 밭작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대신 금곡, 무농, 금덕, 월강, 삼봉, 장계리 일대는 주로 쌀농사를 짓는다.

이는 근방에 조성된 넓은 토지 덕분인데 토질과 수리시설이 양호해 쌀농사에 좋은 조건이라 수확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미질 역시 좋은 편이다. 장계리 전역에서 생산된 쌀은 지역에서 소비하고도 남아 거의 대부분을

메뚜기 쌀

외지로 반출하는데 상인과의 거래보다는 농협을 통한 출하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보리는 외곽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재배하여 식량으로 하는 농가가 많았으나, 식량문제가 해소되고 생활이 윤택해지면서부터 보리재배는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다른 경제작물을 심어 수입을 늘리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다.

2) 잡곡류(雜穀類)

외곽지역에서 많이 재배해 자급자족하고 잉여분은 시장과 농협을 통해 판매해 쓰고 있으나, 식생활개선과 건강식품 선호에 따라 경제작물 재배농가가 늘고 있다.

3) 채소류(菜蔬類)

장계지역은 채소는 가용량 정도만 재배해 왔던 게 사실이나 지금은 봄부터 가을까지 고랭지 채소의 선호와 인기에 힘입어 많은 농가가 밭과 논에 이모작을 해 대량으로 외지에 반출하여 수입을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계리를 제외한 외곽지역 대부분이 재화획득의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형편인데, 장계면의 식량작물 재배면적을 보면 총 461.8ha 면적에 미곡이 424ha에 이르고 두류(콩과 팥)는 1ha, 서류(고구마, 감자)는 2ha에 이

11) 2008년 기준

르지만, 배추 재배면적은 14ha, 고추 26ha에 이른다.¹¹⁾

라. 경제작물(經濟作物)

1) 엽연초(葉煙草)

옛날만 해도 장계리 신동에 담배 수납장이 있을 정도로 엽연초 생산이 활기를 띤 산지였으나, 출하물량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이 수납장마저 폐쇄되어 버렸다. 이는 엽연초 생산 농가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 할 것이다.

지금은 변두리 지역의 농가에서 부업으로 몇 농가만이 생산에 주력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일손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점차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2) 잠업(蠶業)

잠업 역시 지역경제에 비중 높은 작목의 하나였으나, 사양산업이 되고 말았다. 일손부족과 농약사용으로 인해 양잠을 하기 불리한 요건이 되었으나, 그 보다는 손쉬운 다른 경제작물 재배 쪽으로 전환한 때문이 더 큰 이유일 듯싶다. 특히 과수산업의 활성화로 농약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양잠산업은 반비례로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의 사양산업이 되어 언제 다시 부흥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3) 약초(藥草)

약초는 자연산 약초를 제외하고 농가에서 재배하는 약초는 그리 많지가 않고 수량도 적은 편이다. 특히 중국산 약초의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일손부족 등을 이유로 재배하기를 꺼려 몇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절 않아 감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배하고 있는 약초의 종류를 보면, 인삼, 오미자, 가시오가피, 당귀, 도라지, 작약, 천마, 목단, 사삼, 천궁, 황기정도이며 그 규모 또한 적다.

다만 얼마 전만해도 가시오가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가시오가피 재배농가가 크게 늘어 영농조합까지 결성해 판로 개척에 힘을 쏟기도 했으나, 지금은 몇 농가만이 그 맥을 잇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약초와는 달리 나무농장을 경영하는 농가가 점차 늘고 있는데 재배 품목으로는 주목을 비롯한 관상수가 그 주를 이루고 있다.

4) 과실류(果實類)

장계면은 계남면과 인접해 있으면서, 동서남북 네 방향 모두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고 있어 따뜻할 것 같으나, 해발 350m(소재지 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산서나 변암면에 비해 추운 편이다. 10여 년 전 까지만 해도 장계면 지역의 과수농가는 서너 농가에 불과했으나, 군(郡)으로부터 고랭지 사과식재 권장과 지원에 힘입어 지금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전체 재배면적 중 사과재배면적이 80%를 넘고 있어 사과재배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랭지 사과의 좋은 가격과 인기에 힘입어 특용작물 재배농가까지 과수재배 쪽으로 전환한 탓이라 하겠다.

【장계면 과실류 생산 현황】

(2008년 말, 단위 : ha, M/T)

합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83.7	1,397.9	68.2	1,186.0	3.9	52.0	4.3	74.9	4.5	80.8	2.8	4.2

마. 양봉(養蜂)

옛날에는 명덕리, 대곡리, 금덕리, 금곡리 등 외촌마을에는 심심치 않게 양봉이나 한봉을 키우는 농가들이 종종 눈에 띄이곤 했으나, 지금은 거의 없다. 농약 살포로 인해 벌들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봄 아카시아와 밤꽃이 필 때면 외지에 있는 양봉업자들이 꿀을 수확하기 위해 벌통을 놓아 키우는 모습이 간혹 눈에 띄지만 전문적으로 한봉이나 양봉을 키우는 농가는 거의 없다.

바. 양어(養魚)

대곡리, 명덕리 같은 청정지역에서 시도해 볼만한 사업이나 아직 장계지역의 담수 양어장은 없는 실정이다.

사. 축산(畜産)

축산은 가내 부업에서 탈피해 현재는 전업 혹은 대규모 축산농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 양돈산업이 한 때는 활성화되어 대단했으나 고기값 파동과 사료값 인상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부담이 가중되어 지금은 몇 농가만이 그 맥을 유지하고 있다. 한우의 경우는 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장려로 많은 농가

에서 소규모영농을 탈피하고 대규모 축산영농을 시도해 점점 그 틀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이다. 개, 닭의 사육농가 역시 소규모 운영형태를 벗어나서 대규모 사육을 시도하지만 지원 없이 스스로 적응해 나가기에는 벅찬 실정이다. 사육농가 대부분이 부업의 형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장계면 축산 현황】

(2008년 말 단위 : 가구, 마리)

가축명	한육우	돼지	닭(수수)	마필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수수)	거위(수수)	오소리	꿀벌(군수)
농가수	261	5	3	2	9	3	13	202	2	4	1	20
두수	3,610	3,091	56,408	36	157	18	98	586	7	11	2	690

아. 교육(敎育)

학교는 유아원, 유치원을 비롯한 장계초등학교, 장계중학교, 장계공고, 마사고교가 있다.

자. 문화(文化)와 유적(遺蹟)

장계면의 문화와 유적지로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진 의암 주논개생가¹²⁾가 있고, 1592년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진주성에서 순국한 최경회 장군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패를 모신 월강사¹³⁾가 있으며, 조선 선조 때 이괄의 난에 큰 공을 세워 충무공이란 시호를 받은 금남군 영정각¹⁴⁾이 있으며, 전통사찰로 지정된 성관사¹⁵⁾가 있고, 백장선생 신도비¹⁶⁾가 있으며, 삼봉리 남산마을 앞 노평 냇가 부근에 자락정¹⁷⁾이 있으며, 금곡리 동정마을 냇가 절개지에 있는 바위굴은 일명(一名) ‘서문씨굴’이라고도 하는데, 그 벽에는 조선 순조 때 명필이자 장수현감을 지낸 이의성이 쓴 ‘동정대’란 글씨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옛 자취를 돌아보게 한다.

그리고 삼봉리 탑동마을 입구에 위치한 탑동석탑은 고려 말과 조선 초기에 축조된 4층 석탑으로 문화 유적물이다. 또한 남산리 노평 들 하부에 있는 지석묘(支石墓)는 상고인들의 업적으로 삼을 만 한 문화유산들이다.

차. 광산(鑛山)과 공장(工場)

1) 광산(鑛山)

광산은 명덕리 수연(물리브덴)광산이 1930년대에는 동양에서 최고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으나, 1945년의 광복과 더불어 폐광되고 지금은 광산에서

- 12) 대곡리 주촌마을 소재
13) 월강리 도장마을 소재 : 문화재 자료 제31호
14) 금곡리 금곡마을 소재 : 문화자료 제33호
15) 금덕리 산 38-1번지
16) 금덕리 648번지
17) 상봉리 942번지 : 문화재 129호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금곡리 마을 옆 산에 있는 규석과 활석 광산은 1960년대 활발하게 작업을 했으나, 지금은 한 곳에서 규석을 채탄해 외부로 반출하고 있다. 2006년 규석의 총 생산량은 860ton 이고 활석은 200ton 이었다.

2) 공장(工場)

장계면 금덕리에 있는 장계농공단지¹⁸⁾와 덕유산 물푸레나무를 이용해 만드는 주걱공장이 금곡리에 자리하고, 대리석을 이용한 석기공장, 임산물을 가공하는 제재공장이 있다.

특히 장계면 금덕리 앞 공동묘지를 개발하여 부지 87,780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당시만 해도 입주업체를 선별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이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개통과 맞물려 자재수송의 원활을 예견한 때문이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로 종업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와 교육시설의 낙후 등을 이유로 이주한 기업들이 하나둘 도시근교의 공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해가는 바람에 현재는 서너 개 업체만이 가동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금곡리소재 목기구공장은 가내공업 수준에 있고 대리석을 이용한 석기공장 역시 가내공업 수준이다.

18) 입주업체 9개, 종업원 267명(2007년도 기준)

카. 관광지(觀光地)

관광지로는 덕유산 자락의 할미봉 중턱에 있는 대포바위와 명덕산성, 그리고 육십령과 무룡궁 고개는 하루해가 짧을지라도 한 바퀴 돌아볼 만한 관광지로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특히 육십령 팔각정에서 바라보면 그 아래 펼쳐진 한국마사회소속 장수목장 전경은 그림 같아 조망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주며, 역시 주촌마을 논개생가지와 함께 주촌마을의 전통민속마을 또한 돌아볼 만한 곳 중의 하나다.



할미봉 대포바위

타. 종교(宗教)

종교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등이 있다. 불교는 성관사, 세심사, 선유사 등이 있고, 장계천주교성당과 장계교회, 제일교회, 명덕교회, 대곡교

회가 있으며 원불교로는 장계원불교가 있다.

5. 천천면(天川面)



천천면의 지형은 동쪽으로 범화산 줄기가 뻗어 시루봉으로 이어지면서 계남면의 신전리, 화양리, 침곡리와 접해 있는가 하면, 장계면 금곡리 그리고 계북면 월현리, 임평리 와도 접해 있다. 서쪽으로는 성수산 줄기가 감싸 안 으면서 진안읍, 백운면, 상전면과도 인접해 있으며, 북으로는 천반산이 북쪽을 막아 주며 서 있지만, 진안군 동양면과 접해 있고, 남으로는 장수읍 노하리와 선창리에 인접해 있어, 동과서의 양쪽 산 아래 남과 북으로 길게 자리 잡은 곳이다.

따라서 논보다는 밭이 많을 것 같아도 논이 많은 이유는 금강 상류인 춘송천을 따라 양쪽 언덕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수 면적까지 포함하면 밭이 약간 많은 편이다. 전주와 장계를 잇는 26번 국도가 천천의 동과 서를, 그리고 장수와 금산을 잇는 13번 지방국도는 천천면의 남북의 소통을 돕고 있다. 또한 비록 진입로는 없으나 익산과 포항을 잇는 고속도로가 천천면의 소재지 상공을 가로지르며 동서로 지나가고 있다.

가. 인구(人口)

총 인구는 2,316명(남1,154명, 여1,162명)이며, 그중 65세이상 인구수는 총 759명(남 305명, 여 454명)이 있다. 세대수는 1,062세대이다.¹⁹⁾

19) 2009년 기준

나. 면적(面積)

총 면적은 83.91km²(장수군의 15.7%)이며 경지면적은 1,153.5ha(전 457.7

ha, 답 695.8ha)이며 과수원은 30.9ha이고, 하천은 2,579,842.6m²이다. 1면 25개 행정리와 10개 법정리 그리고 69개 반(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 2008년 기준

다. 식량작물(食糧作物)

1) 미곡류(米穀類)

천천면의 주곡 역시 쌀이다. 이는 장판리, 월곡리, 남양리, 삼고리, 봉덕리, 춘송리, 용광리, 오봉리, 연평리 등지는 금강 상류인 춘송천(春松川)을 따라 논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평리 들은 장수군 유일의 퇴적평야(堆積平野)로서 작물 수확량이 많은 곳이다.

따라서 논의 면적은 적으나 그 면적에 비해 곡식의 생산량이 많다. 천변의 양(兩)언덕에는 밭이 많아 지난 10여 년간 잎담배 생산과 소득이 작목별 소득 1위를 점한 일도 있었으나, 지금은 과수원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아 사과와 오미자 그리고 배추, 무 등의 고랭지 작물과 인삼 재배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주 작목은 역시 쌀이다. 대부분 지역이 마찬가지로이지만 이 지역 역시 자체 생산된 쌀은 자급자족하고도 남아 농협을 통한 수매와 상인을 통한 외지출하를 겸하고 있다. 보리는 답과 전을 이용하여 많은 경작을 하였으나, 1970년 후반에 이르기까지 폐작한 상태이다. 그 이유는 수도작 영농의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수확량 증가로 식량문제가 해결되면서 맥작의 생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 되어 버렸다.

2) 잡곡류(雜穀類)

밭이 많다보니 두류(콩, 팥)와 서류(고구마, 감자) 등은 많이 심는 편이 아니다. 식량문제가 해결되다 보니 자가 소비량 정도 재배하되 남은 것은 판매하기도 한다. 깨를 많이 심었던 옛날에 비해 지금은 소득이 높은 오미자 재배를 늘려가고 있다. 천천면의 식량작물을 비교해 보면 총 작물면적 580ha 중 미곡이 415ha 인데, 이중 콩과 팥은 1ha 이고 고구마, 감자는 1ha이다.

3) 채소류(菜蔬類)

천천면 역시 옛날에는 자급자족 정도만 채소류를 재배하였으나, 지금은 고랭지 채소의 인기와 선호도가 높아 배추, 무는 물론 오이, 호박 등도 재배해 농협과 청과상을 통한 출하로 농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천천면의 채소류 재배 면적은 다음과 같다.²⁰⁾ 엽채류 총 면적은 23ha 중 배추 19.5ha, 무

0.4ha, 고추 95ha, 깨 51.7ha이고, 과실류는 총 98.8ha 중 사과 93.9ha, 배 0.2ha, 복숭아 1.8ha, 기타 2.9ha이다. 결국 과채류 총 재배면적은 121.8ha로 그만큼 채소류 경작면적보다 과수 경작면적이 많은 것은 수익성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라. 경제작물(經濟作物)

1) 엽연초(葉煙草)

담배는 이 고장에서 경제작물의 하나로 재배한지 오래다. 현재는 멸칭재배 기술의 보급으로 많이 생산되며 품질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다. 천천면은 관내 주산지였으며 96년이래 10여 년 간 잎담배 소득이 작목별 1위를 점한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일손부족과 기후변화 탓으로 늦봄에 내리는 서리와 우박의 피해도 적지 않아 농가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2) 잠엽(蠶業)

천천면 역시 양잠을 많이 사육해 번창한 일도 있으나 근래에는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해 완전 사양산업이 되고 말았다. 인체에 무해한 자연섬유인 양잠엽의 부흥이 필수이나 이를 시도하기에는 역부족인 이유는 청정지역에서만 잠엽이 가능한데, 과수원과 식량작물에 뿌려지는 농약의 양이 해마다 갈수록 증가일로에 있어 어려운 실정이다.

3) 약초(藥草)

오미자



약초는 당귀, 천궁, 길경, 황금, 시호, 작약, 목단, 오미자, 구기자, 사삼, 생지황, 택사, 인삼 등을 재배하나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기술면으로도 원시적이어서 양과 질에서 만족할만한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형적으로나 기후적으로 약초 작물의 재배에 적합한 지역임에도 증가하지 못하는 것은 일손부족과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채산성 있는 약초를 선별하여 재배하는 것 또한 이 지역이 풀어

야할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오미자 재배 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4) 과실류(果實類)

천천면은 해발 330m(소재지 기점)로 장계면과 비슷한 편이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천천면이 엽채류 재배면적보다 과실류 재배면적이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금강의 상류인 춘송천(川)을 따라 논과 밭이 형성되어 있어 그 밭을 이용하여 수확하던 엽채류의 수익보다 과실류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과실류로 전환한 탓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은 야산을 과수원으로 개발해 이용하는 추세다.

천천면 역시 전체 과실 재배면적 중 사과 재배면적이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사과재배의 적지임을 알 수 있다. 천천면의 과실류 재배현황은 아래와 같다.

【천천면 과실류 생산현황】

(2008년 말, 단위 : ha, M/T)

합계		사과		배		복숭아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98.8	1,682.2	93.9	1,641.0	0.2	4.0	1.8	32.9	2.9	4.3

마. 양봉(養蜂)

천천면 역시 양봉의 조건은 좋은 편이나 전업농은 없다. 앞서 말했듯이 양봉농가가 없는 이유는 농약사용의 증가 때문이다. 양봉 또한 잠업처럼 청정지역에서만 가능한 업종인데 농약 사용이 빈번하다보니 사양산업이 되고 말았다. 몇 농가에서 자연산 꿀을 채취하기 위해 한봉과 양봉을 사육하는 농가가 있으나 전문농은 없다.

봄이 되면 아카시아 꿀을 채취하기 위해 외지 양봉업자가 상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또한 농약 살포지역을 피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이다.

바. 어류(魚類)

천천면은 하늘이 맑고 물이 깨끗하기로 유명하여 담수양어의 적지라 담수양어의 발달이 있을 법도 한 지역이나 현재까지 그러하지가 못하다. 송어 양식을 시도한 일이 있으나 실패한 이후 다시 시도하는 사람이 없다.

사. 축산(畜産)

축산은 부업과 전업축산 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 부업의 축산은 대개 한우, 돼지, 개, 염소, 토끼, 닭 등으로 종류가 많은 편이지만, 전업축산은 한우, 돼지, 개, 염소, 닭 등으로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다. 부업적 축산은 많은 농가가 참여하나 그 수량이 많지가 않고 시장성 보다 자가 위주다 보니 경제적 이익도 미미한 편에 속한다.

대신 전업농은 한우를 비롯한 양돈, 양계, 개 등을 사육하나 사료 값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연적 조건은 좋은 편이나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다.

【천천면 축산 현황】

(2008년 말, 단위 : 가구, 마리)

가축명	한육우	젓소	돼지	닭(수수)	마필	산양	사슴	토끼	개	꿀벌(군수)
가구수	184	1	5	2	2	6	3	3	60	3
두수	2,037	33	2,254	92,000	102	20	74	18	114	900

아. 교육(敎育)

연평초등학교와 월곡초등학교가 있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폐교하고, 지금은 천천 초등학교와 천천 중학교가 있다.

자. 문화(文化)와 유적(遺蹟)

천천면 장판리 산21번지에 소재한 타루비²¹⁾가 있으며, 비룡리 38번지 신광마을 위에 자리한 신광사²²⁾는 신라 흥덕왕 5년(831년) 무염국사가 창건하였고 조선조 현종 15년(1849년) 장수 현감 조능하에 의해 중창되었다고 전해지는 유서 깊은 절이다.

비지정 문화재로는 삼고리 입구 노변에 김홍 효자려가 있으며, 월곡리 도로변에 박귀천 효자려가 있고, 연평리 새터(신기)마을 당집 터가 있으며 풍치 기념물로는 신기마을의 팽이바위가 있고 봉덕리 336번지 고금마을 뒤에는 1998년 천연기념물 396호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있다.

차. 광산(鑛山)과 공장(工場)

광산은 월곡리 규석광산이 있으나 규모가 작은 광산이었다. 오봉리 오옥부근에서 양질의 활석이 보였으나 개발할 수 있는

21) 지방기념물제83호
22) 지방유형 문화재113호

천천농공단지



광구는 보이지 않아 채광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도 장계면 금곡리 대리석 광맥이 이곳까지 연맥(緣脈)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다.

공장은 1989년도 월곡리에 17,156 평 규모로 조성된 농공단지에 11개 업체가 분양을 받아 입주하였으나,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입주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6개 업체만이 운영을 해오고 있다.

2007년에는 다시 11개 업체(종업원 수 74명)로 294억원의 생산액과 4,630만불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다.

카. 관광지(觀光地)



와룡자연휴양림

관광지로는 와룡리 자연휴양림이 있다.

이 휴양림은 비룡리(중산마을) 산84-2번지에 104ha 면적에 1일 1,2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만든 장수군이 운영하는 휴양림으로, 이곳에는 통나무집 3채 산막12채 연수 집1채, 복합 산막13평형 12개실, 야영 텐트장 3개소, 공동취사장 5개소 매점 겸 식당 1개소 등의 편의시설이 있으며, 어린이 물놀이터와 물썰매장, 등산로 등의 체육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타. 종교(宗教)

종교는 불교, 기독교가 있다. 불교로는 신평사가 있고 기독교는 춘송교회, 산고교회, 연평교회, 월곡교회, 신기교회 등이 있다.

6. 계남면(溪南面)



계남면은 장수군 7개 읍면 중 타 시군과 접해 있지 않은 유일한 면으로, 동으로는 덕유산 산맥의 힘찬 줄기가 장안산으로 흘러내리면서 백화산을 기봉(起峰)해 등을 감싸 안으면서 장계면 일부, 변암면 지지리와 접해 있고, 서쪽으로는 봉화산이 경계를 이루어 천천면 월곡리, 삼고리와 북으로는 동편들을 흐르는 냇가가 장계면과 접하고, 남으로는 싸리재를 기점으로 장수읍과 접해 있다.

또 계남면은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장수를 대표할만한 유학 선비들을 배출한 고장이며, 현재에도 마을마다 유교문화의 유적이 많은 곳으로 장수읍에서 북쪽으로 난 국도 19호선을 따라 약 10km에 위치한 곳이다.

계남면은 장수요금소(料金所, Toll Gate)가 있으며 19번 국도가 계남의 남과 북을 관통하고 있다. 요금소(Toll Gate)주변에 산지거점유통센터(S-APC)가 자리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가. 인구(人口)

인구는 총 2,369명(남 1,200명, 여 1,169명)으로 이중 65세이상 인구수는 총 679명(남 281명, 여 398명)이다. 세대수는 1,005세대이다.²³⁾

나. 면적(面積)

총 면적 50.27 km²(장수군의 9.4%)이며 해발 380m로 경지면적은 1,069.5 ha(전 435.9 ha, 답 623.6 ha)이고, 과수면적은 27.6ha이며, 하천은 974,577.6 m²이다. 1면 26개 행정리 8개 법정리 48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23) 2009년 기준

다. 식량작물(食糧作物)

1) 미곡류(米穀類)

계남면의 주곡은 역시 쌀이다. 예부터 장안, 가곡, 궁양 등은 밭작물의 주산지인 대신, 침곡리, 화양리, 신전리, 화음리, 호덕리 등은 논이 많은 지역으로 쌀 생산지였다. 장안 계곡과 싸리재 계곡이 흐르는 관계로 농사의 좋은 조건이 되어 토질이 비옥하고 품질도 양호한 편에 속했다. 결코 넓지 않은 들녘이긴 해도 생산된 쌀은 이 지역 주민이 자급자족하고도 남아 외부로 반출하여 재화와 교환, 생활의 윤택을 도왔다.

또한 가곡, 궁양, 장안 등 3개리는 병목현상처럼 안옥한 별천지 같아 전후좌우로 이어지는 산 속에 제법 많은 옥야가 펼쳐져 한 폭의 그림처럼 산자수명한 곳이기도 했다. 산에는 산림과 산야초가 풍부하고 논과 밭은 비옥해 벼농사 밭농사 모두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보리농사는 쌀농사 다음으로 주곡이다. 그러나 고지대이자 한랭한 기온으로 맥작과 수도작의 이모작이 불가능했던 관계로, 1976년 식량증산 운동 때 주곡 식량 해소로 맥작은 전폐되다시피 했으나, 그 대신 다른 경제작물로 대체되어 지금은 과수농가가 밭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잡곡류(雜穀類)

잡곡은 콩, 팥, 조, 수수, 서류 등을 말하는데 계남면의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²⁴⁾ 총 경작면적 411 ha 중 쌀 405 ha이고 잡곡은 옥수수 3ha, 콩, 팥은 2.3ha이며 감자 고구마는 1ha정도이다. 결국 주곡의 식량해소로 잡곡 생산이 감소한 대신 과수면적(33.4 ha)이 크게 늘었는데 반해, 잡곡 생산은 거의 늘지 않아 자가소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4) 2008년 기준

3) 채소류(菜蔬類)

채소는 가용으로 할 것만 재배했으나, 고랭지 채소의 인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고랭지 배추, 무 등 채소를 대량으로 재배하고 생산해 외지로 반출하여 수입을 늘리는 농가가 많아졌다. 채소류의 생산 면적을 보면 총 재배면적 96.3 ha 중 배추가 29.4 ha, 무 4.9 ha, 고추 37.3 ha이다. 깨와 파, 마늘 등의 채소류는 가용으로 재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쌈배추



라. 경제작물(經濟作物)

1) 엽연초(葉煙草)

밭이 많은 관계로 담배는 주 소득 작목의 하나였다. 산과 밭을 이용해 다량재배하고 많은 수확을 얻어 가게에 큰 보탬이 되었으나, 일손부족과 경제작목의 전환으로 인해 사양화 하는 면도 없지 않으나 아직도 엽연초 생산에 참여하는 농가가 적지 않다. 다만 그 면적이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만은 사실이다.

2) 잠업(蠶業)

농가의 가용에 큰 보탬이 될 정도로 성행한 적도 있었으나, 이곳 역시 농약 사용의 확대와 일손부족 그리고 뽕나무의 훼손으로 인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재배농가가 전무한 상태이다.

3) 약초(藥草)

옛날에는 산에 올라 채취하고 판매해 농가의 주요 수입원이 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자연산에 의존하기보다는 재배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재배 품종으로는 인삼, 당귀, 천궁, 길경, 시호, 황기, 산마, 가시오가피, 오미자 등을 재배하지만, 특수 농가를 제외하고는 이조차도 재배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수준이다. 다만 오미자와 가시오가피 만은 몇 농가가 참여해 재배하고 약재로도 판매하지만 대부분 엑기스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인삼은 외지인이 농지를 임대해 재배하는 경향이 뚜렷하나 몇 농가는 전업농이라 할 만큼 대량으로 경작하는 농가도 있어 재원마련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다.

4) 과실류(果實類)

계남면은 해발 370m(소재지 기점)로 지형상 장계와 한 분지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로는 장계보다 해발이 20m나 더 높게 나와 있다. 따라서 고랭지 과실류 특히 사과재배의 최적지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장안산 아래 야산을 이용한 과실 재배면적이 점차 늘어나 인근의 장계면 재배면적보다 훨씬 많은 편이다. 더구나 계남면 침곡리에 위치한 과실류 선별공장인 S-APC가 자리하고 있어 출하 이동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계남면 과실류 재배현황】

(2008년 말, 단위: ha, M/T)

합계		사과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33.4	2,157.1	30.7	2,153	2.7	4.1

마 양봉(養蜂)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이듯이 계남면 역시 양봉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없다. 다만 장안리 일대 몇 농가가 장안산 꿀을 채취하기 위해 한봉과 양봉을 사육해 가용으로 쓰고 있을 뿐이다. 농약 사용이 빈번하다보니 외지에서 오는 양봉업자들마저 지금은 뜸한 편이다.

바. 양어(養魚)

산골의 맑은 물을 이용해 담수 양어가 성행할 듯 싶으나 실제로는 그러하지가 못하다. 경영미숙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그보다는 판로가 막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담수 양어를 판매하는 곳이 있긴 하나 일시적 또는 계절에 따라 판매할 뿐 사계절 담수양어를 하는 곳은 없다. 벽남제의 빙어는 대단히 좋은 양어가 될 수 있으나 시도한 농가가 전무한 상태다.

사. 축산(畜産)

계남면의 축산은 한우와 젓소, 염소, 개, 닭, 돼지 등을 기르고 있었으나 축산물의 하락과 사료비 인상, 노동력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지금은 한우, 양돈, 개, 등만을 사육하고 있다. 한우는 장수군의 지원에 힘입어 부업보다는 전업이다 싶을 정도로 대량으로 사육하는 농가가 있으나 양돈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계남면 축산 현황】

(2008년 말, 단위: 가구, 마리)

가축명	한육우	젓소	돼지	닭(수수)	산양	사슴	개	오리(수수)	타조(수수)	꿀벌(군수)
가구수	300	1	10	3	29	4	150	1	1	23
두수	5,301	9	13,647	129,800	109	29	666	4	1	1,025

- 25) 문화재자료제176 호
 26) 문화재 자료 제40 호
 27) 지방문화재자료147 호
 28) 화음리136번지,
 문화자료제34 호

아. 교육(敎育)

학교는 계남초등학교, 계남중학교, 백화여자고등학교가 있다.

자. 문화(文化)와 유적(遺蹟)

장계에서 서쪽으로 2.5km 떨어진 계남면 침곡리와 천천면 춘송리의 경계를 이루는 산 정상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해발 약709m 지점인 법화산 줄기에 길이 170m, 최대 폭140m에 이르는 산성이 있다. 이곳이 바로 침령 산성지²⁵⁾이다. 또한 화음리 935-4 번지에 자리한 수열비²⁶⁾가 있으며, 조선 선조 30년(1597년) 충주박씨, 연안송씨, 남원양씨, 보성오씨, 문화유씨, 전주최씨, 전주박씨, 동래정씨, 금계한씨, 안흥서문씨, 청주한씨 등 11개 성씨가 모여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창건한 흥학당²⁷⁾과 1961년 창건한 파은 박수기의 6분의 위패를 모신 화산사²⁸⁾가 있으며, 옛 장안초등학교 터에 새로 세운 장안 문화예술촌이 자리하고 있다.

차. 광산(鑛山)과 공장(工場)

계남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분지를 이룬 형태인 지형에 비해 광산은 한 곳도 없다. 공장은 계남면 호덕리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아래에 자리한 농산물 가공을 포함한 선별과 포장공장인 S-APC가 있으나, 사계절 운영되지 못하고 출하시기만 운영되고 있다. 이는 출하물량이 적기 때문인데 현재 농협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신전리 싸리재 부근에 있는 한국나노의 장수촌 건물은 수영장을 포함한 복합건물이며, 그 아래에 있는 우진산업은 축산물의 위탁 도축을 하는 도축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카. 관광지(觀光地)

계남면 장안리 쪽 관광 순환도로에서 산등성이를 따라 오르는 장안산(해발1,236.9m)의 등산도 빼놓을 수 없고, 1985년에 조성한 벽남제 방에서 강태공의 후예임을 자칭하는 것 또한 낚시인들의 묘미일 것이며, 앞서 말한 방어산성에 올라 천천면과 장계, 계남 그리고 멀리 진안 마이산을 굽어보는 조망의 즐거움 또한 하루가 아쉬울 것이며, 예술과 문화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장안 문화예술촌에서 실시하고 있는 천

장안문화예술촌



연염색도 배워보고 공예품의 양·음각 이해도 넓혀보는 것 또한 관광의 묘미일 듯싶다.

타. 종교(宗教)

이 땅에 천주교가 자리 잡기 이전의 종교는 불교와 유교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목적이라면, 유교는 삼강오륜을 기본으로 하는 선인들의 가르침이 밑바탕이라 할 수 있다. 계남의 홍학당은 유교의 산실로 장수 4대 향학당 중 하나다. 산서면의 지금당, 장수노화당, 계남의 홍학당, 근수루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계남향학은 전국의 으뜸이라 할 만큼 선인들의 유교적 윤리를 받드는 후예들이 많다. 교회는 내동교회, 계남가곡리 제일교회, 화음리 계남교회, 신전리 신전교회가 있다. 불교와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많겠으나 사찰은 없다.

7. 계북면(溪北面)



계북면은 장수군의 최북단에 위치한 면으로 1,508m의 남덕유산이 있으며 국도 19호선이 면의 중앙을 통과하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역시 면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다. 지형적으로는 백두대간이 덕유산에서 크게 기봉(起峰)한 다음, 남쪽으로 뻗으면서 할미산을 기봉하고 다시 서행한 줄기는 삿갓봉에 기봉 했다.

작은 삿갓봉은 다시 세 줄기로 나뉘 서행하다 수많은 골짜기를 만들면서 문성, 파곡으로 내려오고 다시 천반산에서 기봉한다. 동으로는 어전리, 원촌리, 양악리가 할미산을 경계로 경남 거창군 북상면, 함양군 서상면과 접하고, 남으로는 농소리, 매계리, 월현리가 장계면과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

29) 2009년 기준

는 월현리와 원촌리가 천천면과 진안군 동양면에 각각 인접해 있고 북으로
는 원촌리, 양악리가 무주군 안성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가. 인구(人口)

총 인구는 1,715 명(남자 853 명, 여자 862 명)으로 이중 65 세이상 인구수
는 총 584 명(남 225 명, 여 359 명)이 있다. 세대 수는 782 세대이다.²⁹⁾

나. 면적(面積)

총 면적은 5,588km²(장수군의 10.5%)이며 경지면적 867.5ha(전 397.4 ha,
답 470.1 ha)이고, 과수원은 12.7 ha이며 하천은 878,343m²이다.

해발 460m 인 계북면은 1면 15 개 행정리와 7 개 법정리 그리고 42 개 반
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식량작물(食糧作物)

1) 미곡류(米穀類)

식량작물은 전담 전체 면적에서 쌀과 보리, 잡곡 등을 재배하여 주식과 부
식으로 고루 사용했으나, 근래에는 원촌, 어전, 농소, 매계 등의 논과 월현,
양악 등지의 논에서만 쌀농사를 하고, 그 밖에는 대부분 경제작물을 재배하
고 있다. 논에서 생산되는 쌀은 지역주민의 식량에는 충분하고도 남아 외부
시장으로 반출하는데, 일반 상인들과의 거래보다는 농협을 통한 출하방식을
택하고 있다. 미질은 계남, 장계지역보다 일조시간이 짧아 양호한 편은 아니
다. 토질도 인근 타 지역에 비해 좋은 편이 못된다. 맥작은 쌀 이상으로 생산
하여 식량으로 충당하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곡식량해결로 인한
식량증산에 힘입어 생산을 기피하고 있다. 원래 맥작은 평야지대처럼 온대
성 작물인 까닭에 지형이 높고 기후가 냉한 고산 지역은 피해야할 작목 중
하나다.

2) 잡곡류(雜穀類)

잡곡은 주민 식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곡류인 까닭에 산이나 휴경 밭이
없을 정도로 경작했으나, 근래 들어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일손부족 등을 이유로 자급자족에만 치중할 뿐 재원의 일부분으로 삼으려
하는 농가가 없어 잡곡류의 생산량이 좀처럼 늘어나질 않고 있다. 참고로 계

북면의 곡류 재배면적을 보면, 총 379ha 중(미곡 374ha, 잡곡 3ha, 두류(콩, 팥)1ha, 서류(감자, 고구마)1ha에서 알 수 있듯, 잡곡류의 재배면적은 극히 소량임을 알 수 있다.

3) 채소류(菜蔬類)



토마토

채소는 자가 사용 외에는 경작을 하지 않는 편이었으나, 근간에는 늦은 봄부터 가을 사이에 많은 양을 경작하여 외부시장에 반출하는 등 획기적 전환이 눈에 띈다. 소득의 구심점 산업

으로 등장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소는 특히 고랭지 채소의 인기에 힘입어 외부반출이 좋은 편이다. 재배면적을 보면, 총 202.5ha(수박 20ha, 호박 5ha, 토마토 33ha, 배추 59ha, 무 51ha, 고추 32.1ha)로, 과실류 재배면적 47.9ha(사과 31.9ha, 기타 16ha)를 제외하면 밭의 거의 대부분을 채소류 경작에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계북면은 무와 배추가 방출 품목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요즘 들어서는 호박과 토마토 등의 출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고추는 자급자족 외 경제적 측면에서 가용으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농가가 많다. 마늘은 인근 무주군 주산단지에 비해 작황이 저조해 재배면적이 줄어드는 대신 필요한 양을 외부로부터 구입해 쓰는데, 마늘뿐만 아니라 대파 양파까지도 필요한 양을 구입해 쓰는 실정이다. 이는 비단 계북면뿐만 아니라 장수군 전체가 다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기보다는 필요한 양을 상인들로부터 구입해 쓰는 양이 점점 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또한 장수, 장계, 계북 등에는 대규모 육묘장이 있어 그곳에서 필요한 어린 채소류를 구입해 이식재배하려는 손쉬운 영농방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다.

라. 경제작물(經濟作物)

1) 엽연초(葉煙草)

엽연초는 장수군 어디서나 잘 자란다. 이는 담배의 특성 때문인데, 담배는 습한 고보다는 건조한 곳이 좋으며 30도 고온지대보다 서늘한 25도 저

지대에서 잘 자라기 때문이다. 이곳 장수지역은 대체로 급경사지가 많은 까닭에 습한 곳보다 건조한 곳이 많고, 30도 이상의 고온지대보다 25도 이하의 저온지대가 많은 것도 담배 생산지로서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할 것이나, 갈수록 생산량이 감소하는 원인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현상을 꼽지 않을 수 없다. 86년 이후 10여 년간 작목별 소득 1위를 차지한 품목이기도 하다.

2) 잠업(蠶業)

양잠은 풍부한 유희지와 맑은 자연을 이용한 잠업이 왕성했으나, 현재는 농약사용과 상전(桑田)의 다른 용도전환으로 사양산업이 되고 말았다.

3) 약초(藥草)

예전에는 약초의 대부분을 산야에서 채취하여 수요를 공급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산야에서 채취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재배하여 사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장수 오미자는 천천과 계북에서 많이 재배하는데, 품질이 뛰어나 좋은 평을 받고 있다. 현재 생산량도 전국 수위를 차지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미자 이외에도 가시오가피, 인삼, 당귀, 천궁, 황기, 황금, 시호, 백지, 길경, 사삼, 생지황, 작약, 목단 등을 재배하나 농가 부업으로 규모는 영세한 편이다.

특히 인삼은 본래 충남 금산에서 재배했으나 각지로 전파되어 장수지역에서도 논과 밭을 이용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인삼의 수입으로 인해 가격하락과 인건비,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인삼 재배농가가 점차 늘고 있는 현상은 고무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4) 과실류(果實類)

계북면은 장수군에서 가장 높은 해발 460m(소재지 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어느 면 보다 추운 편이다. 더구나 덕유산 자락의 맥이 뻗어 내린 곳에 위치한 탓에 논보다는 밭이 많은 곳이다. 따라서 밭을 이용한 경제작물 재배면적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나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채소와 토마토의 재배면적이 대부분으로 몇 농가에 극히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계북면의 과실류 재배면적을 보면 전체 47.9ha 중 사과 재배면적은 31.9ha로 많은 편이었으나 근래에

는 특용작물 오미자를 재배하여 수익을 올리는 농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

【계북면 과실류 재배현황】

(2008년 말, 단위 : ha, M/T)

합계		사과		기타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47.9	669.0	31.9	564.0	16.0	105.0

마. 양봉(養蜂)

계북면은 골이 깊고 산이 많아 양봉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나 양봉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전무한 편이다. 이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농약도 한 원인일 듯싶으나 주원인은 무엇보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첫째 이유일 것이고, 두 번째는 양봉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일 듯싶다. 한 두 농가에서 한봉을 사육하지만 이는 가용에 필요해서일 뿐 판매가 목적이지는 않다.

바. 양어(養魚)

토옥동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을 이용하여 담수양어를 시작한 토옥동 양어장은 미미한 인지도로 인해 초기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지금은 여름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호황을 누리는 사업으로 변모했다. 앞으로 인공 담수어장이 활발해질 요지가 충분히 입증 되었으므로 번암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추진해 볼만한 사업이며 성공도 예측해볼 수 있다 할 것이다.

사. 축산(畜産)

축산은 지역의 풍부한 산야초를 이용한 한우, 젓소, 염소, 양돈 등이 시작되어 활발했으나, 사료 값 인상과 일손부족 현상으로 인한 부담이 늘자 사육 농가가 점점 줄어든 반면, 전문 사육농가는 늘고 있는 실정이나 대량 사육하는 축산 농가와 양돈 농가가 몇 곳 있으나 이 역시 사료 값 인상과 일손부족 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계북면 축산 현황】

(2008년 말, 단위 : 가구, 마리)

가축명	한육우	젓소	돼지	닭(수수)	산양	사슴	토끼	개	오리(수수)	꿀벌(군수)
가구수	129	2	5	1	9	1	1	61	2	16
두수	1,593	150	2,890	40,000	31	8	13	109	43,000	419

30) 지방유형문화재 제21호

아. 교육(教育)

원촌초등학교와 계북초등학교, 계북중학교가 있다.

자. 문화유적(文化遺蹟)

계북면 양악리 산33번지 토옥동 입구에 있는 양악탑³⁰⁾은 규모는 작으나 조각기법이 고전적이며 섬세하여 조각품으로서 높은 수준의 문화재로 평가되어 있으나, 현재 네 귀퉁이가 거의 파괴되고 탑신부도 마멸정도가 심한 상태다. 양악천 맑은 물가에 자리한 용연정을 비롯하여 문성대는 선인들의 자취를 찾아볼 수 있는 문화유적이다. 그리고 양악리 입구 도로변에 세워진 문태서, 박춘실 의병대장의 전적비, 한글학자 정인승선생의 유허비등 또한 문화유적의 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장수 팔경의 하나인 매계리 압곡과 월현마을 입구에 자리한 시인묵객이 음풍농월 풍류를 즐겼다는 매산청풍도 볼거리 중 하나이다.

차. 광산(鑛山)과 공장(工場)

광산은 임평리 백암마을에 대유광산이 있어 규석을 채탄해 전량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품질이 우수해 전망이 있어 보였으나,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 폐광되었다.

백암(白岩)마을이란 뜻은 흰 바위 동네라는 뜻이 듯이, 이 흰 돌이 나오는 동네여서 광산이 채광된 유래이나 이곳 말고는 광산이 없다.

토옥동계곡

**카. 관광지(觀光地)**

특별히 소문난 관광지는 없으나, 가볼 만한 곳으로는 토옥동 계곡을 빼놓을 수 없다. 남덕유산을 오르는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보면 작은 폭포와 함께 소가 있어 시원함의 극치를 맛볼 수 있고, 하산하는 길에는 정인승 선생의 생가에 들려 우리 한글 지키기에 노력하신 선생의 업적을 되새겨 보는 것도 좋을 듯싶다.

타. 종교(宗教)

불교, 기독교가 주세를 이루지만 월현리에 있는 천주교의 한국전래 초기 불란서 사람 백주교가 피난했다는 토굴이 천주교사에 남아있고, 기독교는 어전리의 계북교회, 백암의 영광교회, 양악의 양악교회가 있다.

제 5 절 명산(名山)

1. 명산(名山)

가. 덕유산(德裕山)



덕유산에서 바라본 백두대간

일명(一名) 여산(廬山)이라고 하는 덕유산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분기점(分岐點)을 이루고 추풍령에서 시작되는 소백산맥의 일부로 호서지방과 영남지방의 분수령을 이루는 산이다. 덕유산은 거산(巨山)으로 일면은 경남 거창, 함양 땅이며 일면은 전북 무주, 장수 땅으로 2개도에 4개 군을 경계하고 있으며 1975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장수 5대 명산 중의 하나다.

덕유산은 두 줄기로 나뉘고 그 한 줄기는 동향하여 합천 가야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한 줄기는 남덕유산과 장수덕유산을 이룬 다음 육십령으로 흘러다시 남향해 영취산에서 분지하고 다시 동남향하여 백운산이 기둥하고 다시 서남향하여 지리산에 이른다.

호남과 영남의 경계를 이루는 덕유산은 금강과 낙동강을 분수하고 남덕유산과 장수덕유산에서 장안산에 이르는 산줄기는 금강, 섬진강, 낙동강 등 3대 강을 분수한다.

덕유산의 일봉은 무주 땅에 기봉하고 이봉은 장수와 함양군의 경계에 기봉했는데 남덕유산(1,508m)과 장수덕유산(1,492m)이라 하고 무주 땅에 있는 산은 북덕유산(1,614m)이라 부른다. 백두대간은 남덕유산의 하단부를 지나 장수덕유산의 정상을 지나 육십령을 흐른다.

장수 남덕유산 산상에는 참샘이라는 샘에서 솟는 물이 겨울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따뜻한 온수이고, 여름에는 손을 담글 수 없을 정도로 찬 물이

숫아올라와 학계의 많은 학자들이 고산식물의 보고로 손색이 없다하여 제1 덕유산이라 한다. 덕유산은 명산이고 거산이며 글자 그대로 후덕한 산임에 틀림없다.

나. 장안산(長安山)



장안산은 계남면에서 동남향 10 리 지점에 장계면에서 남향 20 리, 장수읍에서 동향 30 리 변암면에서 동향 50 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일명 영취산이라고도 부른다.

산의 높이는 1,236.9(약 1,237 m)로 계남, 장계, 장수, 변암 등 4개 면의 중앙에 있는 산으로 1986년에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산이다. 백두대간이 뻗어 전국의 팔대종산을 만들었는데, 그중 제일 광활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장안

산은 도령산맥의 줄기로 오담의 종산이다.

장안산이 전국 8대 종산 중의 하나인 이유는 지형적으로 볼 때 장안 산을 중심으로 우류(右流)는 금강이 흐르고 좌류는 섬진강 하동포구로 흐르는데, 금강의 이남(以南), 이서 지역과 섬진강 이동(以東), 이서 지역이 동서남북 옥야천리(沃野千里)이니 이처럼 광활한 지역의 종주 산이 되는 건 지리학적 논리가 아니더라도 당연한 논리이며 타당하다 할 것이다. 장안산이 품고 있는 비경 중에는 덕산 용소와 방화동계곡, 지지계곡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는 원시수림이 울창하고 기암괴석과 심산유곡에 형성된 자연 그대로의 연못과 폭포가 절경을 이루어 관광지로 손색이 없다.

특히 덕산계곡을 비롯한 크고 작은 계곡 26 개소와 윗용소, 아랫용소 등 7 개의 연못, 지소반석 등 14 개의 기암괴석, 5 군데의 약수터 등 주요 경관이 울창한 수림과 어울려 수려함을 이루고 있다. 덕산계곡의 가을 단풍은 내장산이나 설악산의 단풍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만큼 그 자색이 곱고 뚜렷하다.

무릉궁재는 장안 산 초입에 있는 고개로 지금은 지방도로가 개통되어 교통여건이 매우 편리하다. 무릉궁이란 ‘용이 춤을 춘다’라는 뜻이지만, 도교적(道敎的) 용어로는 산맥이 흐르는 형태가 마치 용이 춤을 추 듯 꿈틀 꿈틀

움직이는 것 같은 형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만큼 산세가 험차고 멋지게 생겼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무룡궁의 산세는 험차게 굽이쳐 내려오다 장안 산에 좌정한다. 따라서 장안 산은 호남과 호서의 조산(祖山)이며 진산(眞山)이다. 무룡궁에서 발원한 물은 서북 지수로, 금강의 최상류 지대가 되며 서남향수는 섬진강의 최상류이고 동남향수는 낙동강의 상류지대가 된다. 이처럼 중요한 요새지임에도 지리산에 치여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은 지리산을 종산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리산을 호남의 진산(眞山)이라 하지만 사실은 덕유산이 기봉(起峰)해 이 줄기가 우측으로 뻗은 게 장안산 이요, 좌측으로 뻗은 게 지리산이다. 따라서 따지고 보면 장안산은 지리산의 부산(父山) 또는 형산(兄山)이 되는 셈이다.

다. 팔공산(일명: 성적산(聖跡山))

팔공산은 장수읍 서남향 20리에 위치한 산으로 높이가 1,151m로 고산(高山)이며 장수 5대 명산 중의 하나다. 소백산맥에서 노령산맥이 시작되는 산이기도 하다. 팔공산을 호남의 진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팔공산에서 시작된 산 줄기는 성수산, 마이산, 만덕산, 남노, 북노를 연결하여 충청도 일부를 이 산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경남을 경계로 하면서 호남의 전역을 연결하는 까닭이다. 이 산에는 기원 6세기경인 신라 진

평왕 24년 백제 무왕 3년(603년) 신라 해공대사가 창건 했다는 역사 깊은 고찰로, 고찰(古刹)에 예속된 암자 8개소에 성인(聖人) 한 분씩 거처하고 있었기에 팔성사(八聖寺)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지금은 증·개축하여 고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산 정상부근에는 합미성(合米城)이라고 하는 고성(固城)이 있는데, 고고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 이 성은 백제시대(百濟時代) 때 축조한 성으로 백제가 강성해지면서 마한을 합병할 때나 혹은 전방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백제 근초고왕 때 축성된 성인듯 하다는 것으로 보아 대략 1천5백년 전이나 혹은 1천6백



팔공산에서 본 일출

년 전의 축성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듯싶다.

합미성이란 이름은 군량미를 보관하던 성이라 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오랜 세월로 인해 성벽이 허물어지고 지금은 일부분만 남아 있을 뿐이지만, 아직도 일부분은 완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당시의 축성기속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남아 있는 성은 둘레 400m, 높이 7m로 지방 기념물 제75호로 지정되어 있다. 산 정상에는 현재 무선 통신탑이 세워져 있어 정상을 오를 수 없으나 예나 지금이나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처럼 이 산이 신앙적 혹은 군사적 또는 교육적 요지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이곳이 중요한 위치였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할 것이다.

이 산은 장수읍 쪽에서 바라보면 아름답고 멋져 보인다. 이 근방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보니 이산에 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아침 해를 조망(眺望)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해아침 이 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가을 산행의 운치를 만끽할 수 있는 산이다 보니 봄과 가을에는 많은 산행인과 풍류를 이는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곳이기도 하다.

라. 천반산(天盤山)



천반산은 천천면 연평리 하단과 진안군 상전면 일부 그리고 동향면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산으로 높이가 646.7m이다. 그다지 높지 않은 이 산은 보기와는 달리 오르기가 매우 힘든 산이다. 오르기 매우 힘든 서쪽과 북쪽에 비해 동쪽은 능선으로 이어져 비교적 험한 편은 아니지만, 거산인 장안산과 팔공산을 오르는 것보다도 더 힘이 드는 건 가파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 정상부근에는 3~4백평 정도의 제법 널따란 평지가 있는데 이 평지에 7개의 작은 산석(山石)들이 정렬한 듯 나란히 서 있어 기이한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대를 할미대라고 한다. 할미대라 하는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도 사머니즘(토속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다. 왜냐하면 천반산은 장수 북방을 수호하는 수문장으로 천천면 연평리 신기마을의 팽이바위와 그 아래 논들 그리고 봉황대의 석벽 위에 있는 소나무는 토속 신앙을 숭배하던 그 옛날 산신 할머니 즉 당할매와 깊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다.

이 산은 그리 크지 않은 산인데도 오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옛날조선 선조 때 울곡의 문하에서 수학한 정여립(鄭汝立) 장군이 보수파에 몰려 이곳 천반산에 은신해 있으면서 민중을 규합해 장차 있을지도 모를 외침에 대비해 군사훈련을 시켰는데, 조정에서는 백성을 현혹하여 모반을 꾀한다는 구실로 반역자로 몰려 부자 모두 관군에게 체포된 뒤 생을 마친 전설이 있음으로 보아 이산의 궁벽(窮壁)함을 역사가 증명한다 하겠다. 장수 5대 명산 중의 하나다. 산 정상에 서서 서북향 쪽인 진안 쪽의 아래를 굽어보면 제법 강의 형태를 띠고 도도히 흐르는 물줄기는 세인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할 정도로 경관이 수려하고 아름답다. 그리고 서쪽으로 조망하면 진안의 마이산이 손에 잡힐 듯 한눈에 들어온다. 전문 산악인들이 자주 찾는 코스 중 하나인 이 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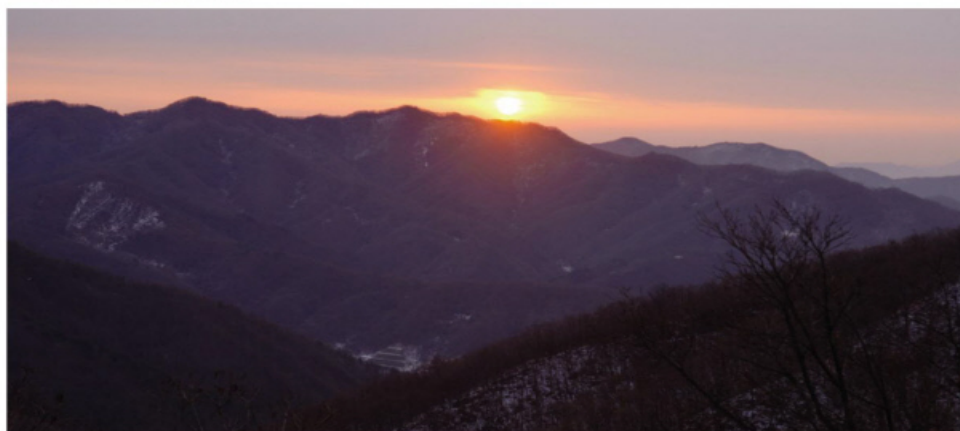
마. 영대산(靈臺山)



장수 5대 명산 중의 하나인 영대산은 산서면 오산리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 명산으로 높이가 666.3m이다. 산의 형태는 수려하고 단아하다. 마치 인자하고 후덕한 어머니가 자식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듯한 산이기도 하다. 이 산은 장수 8경(景)의 하나인 영산영월(靈山迎月)의 경관을 자랑하는 산이

다. 호남의 진산인 팔공산이 의연이 솟아 뻗어 내린 줄기가 성수산, 마이산으로 북향하고, 배후일맥(背後一脈)이 서향하여 갈무봉에서 기봉하고 생왕사절과협개장(生旺死絕過峽開帳)하여 잠잠(岑岑)이 가다가 조용히 머문 산이다. 장수 서쪽 방향을 지키는 대장군이다. 일신(一身)이면 일신(一心)이라는 산서인(山西人)을 상징한다고 할 것이며 후덕한 산서 인심을 말해주는 증거라 할 것이다.

바. 신무산(神舞山)



신무산은 장수읍 용계리와 수분리, 식천리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896.8m이다. 이 산을 중심으로 수분리 마을 쪽 품봉샘은 금강의 발원지이고 용계리 쪽에서는 용계천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며, 개정리 쪽에서는 용의 머리에 해당한다 하겠다. 신선(神仙)이 춤을 추고 있는 산이라 하여 신무산이라 이름 지어진 이 산은, 전설에 의하면 용을 승천시키려고 신선들이 춤을 추는데 주변 용계리와 송천리 사이의 넓은 들 가운데 타관에서 흘러들어와 자리를 잡은 타관산이 이를 알고 자꾸 휘방을 놓는 바람에 신무산에서 승천하려던 용이 승천하지 못하고 주저 앉아버렸다는 전설이 어린 산이다. 이 산 정상에 오르면, 북쪽으로는 장수읍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팔공산 자락과 함께 산서평야가 펼쳐지며 동쪽으로는 장안산이 남쪽으로는 섬진강을 향해 흐르는 산곡 굽이굽이가 한 폭의 그림처럼 남원시가지와 함께 한 눈에 들어찬다. 이 산 대부분이 국유지로서 현재 장수축협에서 한우 계열 화사업의 일환인 목장으로 개발하여 넓은 초지가 조성되어 있다. 옛날에는 자고개 지방도로가 있었으나 폐도(廢道)되고 지금은 목장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사. 타관산(他官山)



장수읍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장안산에서 뻗어 내린 노령산맥의 산세가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형국의 아담한 분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 앞에는 산줄기가 뻗은 흔적도 없이 저 혼자 덩그렇게 서있는 산이 하나 있다. 바로 이 산이 타관에서 흘러들어와 자리를 잡았다하여 이름 붙여진 타관산으로 높이가 623m이다. 산의 높이로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다.

또한 수목이 우거져 불편할 뿐 오르기 힘든 악산(岳山)은 아니다. 앞서 말했듯 향지(鄕地)에 뿌리 내려 좌정한 신무산에게 대들어 뒤편을 놓는 바람에 용이 승천하지 못했다는 전설이 있는가 하면 산맥과 연계하지 못하고 혼자 타관에서 떠나려 와 멈춰서 있는 독산(獨山)이라 하여 타관산이라는 설도 있다.

아. 관주산(冠主山)



관주산은 그 높이가 500m 에 불과한 낮은 산이다. 우리 장수지역은 산악 지대이다 보니 산도 많거니와 거의 대부분이 고산인데 비하면 500m의 산

은 산도 아닐 정도다. 장수 싸리재가 430m이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이보다 높은 산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산에 대해 기록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 산은 바로 장수읍의 주산(主山)이기 때문이다.

풍수설에 의하면 이 산은 옥관의 형(形)이며 산세와 수세가 명결(明結)하여 옥관출세지(玉冠出世地)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장수읍에 현감으로와 선정을 베풀고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정승이 된다고 했는데 그 예가 바로 황희정승 부친이 장수현감으로 와 아들을 낳으니 이가 황희정승이요, 유심춘이 장수현감으로 와서 유후조를 낳으니 정승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요즘에는 이 관주산의 정기를 받아 타 지역에서는 나오지 않는 로또 1등 당첨이 장수지역에서는 두 번 씩이나 나왔다는 그럴듯한 이야기까지 있고 보면 옥관출세지 임이 분명하다는 생각도 든다.

산 정상에 오르면 장수 읍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고 손에 잡힐 듯 팔공산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곳이다.

제6절 희귀 동·식물(稀貴 動·植物)

1. 총론(總論)

본론(本論)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과목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동·식물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도 아니요 연구한 일도 없어 언어도단(言語道斷)같아 무척 조심스러웠고 망설여지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집필해야 할 과목이라 여러 가지 참고 자료를 찾고 문헌을 발취해가며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점 오해 없으시길 바란다.

2. 동물(動物)

가. 사향(麝香)노루

우리는 산(山)을 구분 지을 때 아주 높은 산을 고산(高山), 중간 산을 중산(中山), 낮은 산을 야산(野山)이라 부르듯이, 노루 역시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했다.

즉 대장이, 고라니, 사향노루 등인데 대장이는 고산지대와 중산지대에서 주로 서식하나 고라니는 대부분 중산지대와 야산지대 심지어는 농가 주변까지 내려와 서식한다고 한다. 대신 사향노루는 고산지대의 험준한 바위틈새를 이용해 생활한다고 하는데, 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배설물 때문이라는 것이다. 고라니와 대장이의 분뇨는 모두 동글동글한 환으로 되어 있는 반면 사향노루의 배설물인 분뇨는 타원형인데다 타원 끝부분이 뾰족뾰족한 바늘처럼 돌기가 있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털의 색깔로도 구분이 가는데 대장이는 누런 재색을 띠고 있고, 고라니는 흰 재색을 띠고 있으며 사향노루는 약간 검은 재색을 띠고 있다고 한다.

사향이라 함은 마치 조개에 이물질들을 넣어 진주를 양식하는 것처럼, 사향노루 수컷의 낭신(囊腎)에 파리나 모기 같은 물질이 팔려 들어가 이물질로 자란 물건을 사향이라 한다.

대개 노루복부에 이물질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법제(法製)한 것이 사향이다. 사향은 흑갈색 가루이며 이 노루를 사향노루라 부른다고 했다. 사향노루는 사슴과의 짐승으로 몸길이 1m, 어깨높이 50cm로 뿔이 없고 배꼽근처에 사향 낭이 달려 있는데 그 속에 사향이 들어 있어 일명 궁노루라고도 한다. 법제(法製)란 법에 따라 그대로 만드는 것을 또는 량(量)의 성질을 좀 다르게 가공할 때에 정해진 방법대로 만드는 것을 법제라 하는데, 그 방법은 큰 대노나 질그릇 용기에 사향을 담아 숯불을 피워 열을 높도록 피운 뒤 철 용기를 달아매어 건조시킴으로써 법제가 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향이라는 것이다.

약의 효능은 인체의 어느 부분이던지 모세혈관 즉 뇌혈관 같은 부위에 침투통로를 뚫는 작용이 탁월하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황청심환의 효능과 비슷하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 같다.

우리 장수는 고산, 중산, 야산을 고루 갖춘 산악지대이다 보니 우리 지역에는 대장이, 고라니, 사향노루 세 종류 모두가 서식하고 있다고 보면 옳을 것 같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사향노루는 덕유산, 팔공산 같은 험준한 고산에서만 서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는 건강을 위하여 또는 전문 산악인들이 산을 자주 찾다보니 동물들은 사람의 눈을 피해 더 깊고 더 높은 산으로 이동해 서식하는 바람에 우리들 눈에 자주 띄지 않는다. 우리 눈에 자주 발견되는 것은 야산에 살고 있는 고라니가 대부분이다.

나. 산 우렁

산 우렁은 중간지대의 습한 음지쪽에 서식하는 동물로서 우렁이의 일종이다. 산에 무슨 우렁이가 있느냐고 하겠지만, 실제 산 우렁은 자주 발견된다. 이것이 산에 사는 산 우렁이다. 어디 우렁이 뿐인가! 달팽이도 많이 있다. 풀 앞에 서식하는 달팽이 또한 집 주변 습한 곳에 사는 달팽이보다 훨씬 크다. 전임 기록자 역시 손수 장안산에서 달팽이를 보았다고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보면 50g, 100g 정도의 달팽이도 목격했다고 했다. 자연 생태계를 자세히 관찰하다보면 수많은 동, 식물들이 생존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스치듯 무심코 지나쳐버리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 장수군에 있는 장안산과 팔공산, 덕유산은 생존하는 많은 동, 식물들의 낙원으로 보고(寶庫)가 아닐 수 없다.

다. 물총새

일명(一名) 소새 라고도 하는 물총새는 마치 온 몸을 무지개 색으로 감싼 듯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아름다움이 뛰어난 새다.

피꼬리가 노란 색인데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피꼬리 보다 더 아름다운 새가 바로 소새라고 하는 물총새다. 딱따구리(새)는 죽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서식하지만, 물총새는 시냇가 진흙으로 된 절벽에 굴을 파 서식한다.

다른 새들은 나무 주위에서 혹은 산이나 들에서 서식하고 활동하지만, 물총새는 물이 흐르는 천변이나 냇가에서 생활한다. 작은 물고기와 물벌레 등을 먹이로 하고 있어 다른 새들과 다르다.

일반 새들은 공중에 나는 잠자리, 매미, 나비, 벌, 파리 등을 먹이로 하나 물총새는 물속에 있는 고기와 물벌레만 잡아먹어 우리에게는 이로운 새의 일종이다.

라. 명새

명새는 그 크기가 참새만하다. 가슴은 회고 등과 꼬리는 옅은 재색이다. 생김새가 무척 귀엽게 생긴 새다.

목과 머리에 백색으로 띠를 두른 듯한 모습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새다. 매년 6월경 나타나 고목에 굴을 파고 둥지를 틀어 새끼를 까고 6~7월이면 자취를 감춘다고 한다.

명새는 독사나 살모사 같은 뱀의 습격이 다른 새들에 비해 많이 받는 까닭

에 많은 번식을 하지 못하고 날아왔을 때의 수만큼만 다시 날아간다 하여 아주 귀한 조류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외로운 새라고 한다.

마. 박새

전 집필자께서는 장수군 청사 서쪽에 있는 늪은 은행나무에 10 여 쌍의 박새가 날아와 나무속 빈곳에 집을 짓고 새끼를 낳은 뒤 8~9월 즈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사실인 듯 싶다. 3~4 월 즈음 날아와 활동하는 박새는 흙 백색의 머리에 뺨과 배가 백색이고 등은 황록색으로 숲속에 살고 보호조류로 되어 있는 새다.

주로 곤충을 잡아먹는 박새는 곡식에는 해(害)를 주지 않는 이로운 새라 했다. 그러나 철새인지는 분명치가 않다.

3. 식물(植物)

가. 에델바이스(Edelweiss)

에델바이스는 국화과에 속하는 고산(高山)식물로서 잎과 줄기에 흰 솜털이 나고 꼭대기에 몇 개의 꽃이 피는데, 높이는 대략 10~20cm가량 된다고 하는 식물로 북미주가 원산지라고 되어 있다.

전(前)군지(郡誌)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년 전 서울 생명과학대학(옛 서울농대) 고산식물 조사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대산에서 자생하고 또 장수군 관내 장안산에도 자생한다고 기록한 것을 보면 실로 놀랍고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희귀한 식물인 에델바이스가 우리 장수군의 장안산에도 자생한다니 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일이겠는가!

그러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장안산에서 발견되었다는 학계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 발견되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 본다.

나. 천마(天麻)

천마의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으로 되어 있다. 한약재의 중요한 재료 중 하나다. 산에서 채취하는 자연산 천마는 약의 효능 면에서 월등하지만 그 채취량이 극소량에 그쳐 근래에 와서는 인공 재배한 천마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수입산 천마가 그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산 천마는 고산(高山) 심처(深處)에서 재생하는데 매년 5~6월경에 꽃대가 보인다.

얇은 채약 꺾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약초 중 하나인데, 채약 꺾이 발견하면 대개 그 부근에서 많은양의 천마를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 준 삼이라 했다.

그래서 천마인 것이다.

천마는 썩은 참나무 밑에서 자란다고 하는데, 천마의 약효는 어지러움, 경기(驚氣), 심장질환으로 인한 병에 효험이 있다고 되어 있다.

특히 장안산 천마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천마에 속한다고 한다.

다. 음양곽(淫羊藿)

음양곽은 일명 삼지구엽초(三枝九葉草)라고도 한다. 곱(藿)은 삼지구엽초의 잎을 말하는데 그 잎의 효능은 음위(陰痿), 즉 남성의 성교불능 증(임포텐츠), 냉풍(冷風), 노기(勞氣) 등에 특효가 있다고 한다.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이며 다년생 풀로서 줄기는 셋이고 잎은 아홉개다. 그래서 삼지구엽초라고 하는 것이다. 음양곽이 인기인 것은 남성의 성교불능에 특효하다는 데 있다. 문헌에 의하면 중국 북부지방에도 이 풀이 많이 자생하는데, 어느 봄 날 다른 풀보다 먼저 성장한 이 풀을 신양들이 뜯어먹고 난 뒤 그 중 솟양이 여러 마리의 암양을 상대해도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음란한 짓을 하려고 해 음란한 양이 음기를 북돋아 주는 풀임을 먹었다하여 음양곽이란 명칭이 생겨났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 남성의 정력을 돋우는 데 좋은 약초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겠다.

이 풀은 1,000m 이상의 고산에서 자생하는 풀로서 장안산과 덕유산의 800~1,000m 고지 자락에 자생한다. 지금은 자연생 음양곽이 인기가 있다 보니 인공재배까지 하고 있어 자연생 음양곽을 구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라. 지초(芝草)

지초는 양지바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로서 뿌리는 굵고 자색을 띠며 줄기 높이는 약 35cm로 잎은 두텁고 피침 형이며, 여름에 흰 꽃이 핀다. 뿌리는 일명 자근(紫根)이라 하여 약재로 쓴다.

일명 지초(芝草)라고도 한다. 지초는 불로지초(不老芝草)라는 말이 있듯 지초를 먹으면 백발이 흑발로 변해 불노장생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다

년생의 경우 고목처럼 속이 비어 있는데 그 빈속에 연홍색의 고인 물을 마시면 흰 머리칼이 검어지고 치아가 다시 나는 부생효과(復生效果)를 볼 수 있다고 하여 영(靈)스러운 풀이란 뜻으로 영지초(靈芝草)라고도 하고 또는 영지(靈芝)라고도 한다.

강원도, 경기도 북부, 충청도 북부지대의 고산지에 자생하나 그다지 우수한 약효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한다. 더욱이 근년에 인공재배 해 생산한 지초의 약기로 인해 그 품질과 약효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볼 때, 동국여지승람 장수 물산 편에 장수특산품으로 높이 평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마. 산삼(山蔘)

삼의 원산지는 한국과 중국이다.

중국의 산삼은 우리나라 산삼에 비해 그다지 영스럽지가 않고 효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산삼을 신약의 귀중한 약재로 알고 있음은 바로 약의 효능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는 기후와 토질의 차이이기도 한데, 산삼의 효능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만병통치약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값도 비싸 어지간한 형편으로는 복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재배한 인삼의 모종을 중산지대에 심어 놓았다 어느 정도 자라면 채취하여 복용하는 장뇌삼 재배까지 하는 실정이다. 원래 산삼은 자생종이어야 한다.

자생종은 인삼 밭에 날아 온 새들이 그 씨앗을 먹고 산에 올라 배설을 할 때 그 배설물 속에 섞인 인삼씨앗이 땅에 묻히면서 비로소 자연에 의해 발아하고 착근하면서 오랜 세월 자라나 자생종인 산삼으로서의 효능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산삼이다.

인삼의 인공재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발아부분이 활발해진 후에야 비로소 발아가 가능한 까닭에 절대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쉽지 않은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개갑이 되어 발아가 되었다 해도 습도와 온도가 맞아야 하고 영양공급 또한 적당해야 하며 통풍과정과 음지나 양지도 잘 살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1년 간 자란 삼을 세근(細根)이라 한다. 그 세근을 본포에 옮겨 심고 본포에서 자란 삼을 3년 또는 4년 만에 채근하여

가공한 것을 백삼(白蔘)이라 하고, 5년 만에 채근하여 가공한 것을 홍삼(紅蔘)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공재배의 인삼 역시 힘들고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자연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몇 만분의 1이란 확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산삼을 희귀의 영물로 취급하고 인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꽤 오래 전의 이야기지만 고향이 천천면인 형제가 별초도 하고 성묘도 하려고 조상님 산소를 찾았을 때, 우연히 산삼 4뿌리를 발견해 횡재를 하였다는 소식을 신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일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 장수지역은 덕유산, 장안산, 팔공산 같은 고산에는 다수의 산삼이 서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발견되지 않아 산삼을 캐려면 조상이라도 돌봐야 한다는 말이 생겨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러 세근을 산에 심었다 채근해오는 장뇌삼도 있고, 또 인삼재배 농가가 늘어난 데다 중국인삼까지 수입해 인삼 가격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는 형편이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산삼은 분명 명약임에는 틀림없다.

바. 산 능금나무

장안산에는 고유의 우리 능금나무가 자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가 않아 확인할 수가 없다. 옛날에야 능금이 귀하던 시절이라 관심도 그만큼 많았겠지만, 지금은 흔하디 흔한 과일이 능금인 사과다.

사과는 바로 능금을 일컫는 말이다. 장수 사과는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고령지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사. 주목(朱木)

주목은 주목과의 상록 침엽수이다. 고산식물로 높이는 대략 10~15m 정도 자라 봄에 꽃이 피며 가지와 잎, 껍질은 약용으로 쓰고 몸통은 건축자재와 붉은 빛의 염료로도 쓰인다고 한다.

열매는 9월에 완숙되는데, 식용으로도 가능하고 번식은 열매를 심어 1년 생 가지에 접목하여 번식토록 재배한다 했다. 덕유산(1,615m) 상봉지점에 주목군락지가 있다. 늙은 주목은 자연사(自然死)하여 외피(外皮)는 없어지고

백목(白木) 만이 우뚝 서 오랜 풍상을 겪어 왔음을 보여 주기라도 하려는 듯 지금도 의연하게 서 있음을 보게 된다.

어린 주목은 정원수로 많이 쓰이고 있다. 한국, 중국, 만주, 연해주 등의 해발 800m~2,500m의 고산 식물이다. 이처럼 고산 식물인데도 지금은 많은 농가가 부업으로 주목을 재배하고 있다. 거의 모두 정원수로 판매하기 위해서이다.

참고 문헌

1. 장수군지(1997년) : 장수군 발행
2. 장수를 빛낸 인물(2000년) : 장수 문화원 발행.
3. 장수군의 문화유적(상·하)(2001년) : 장수문화원 발행
4. 장수군 통계연보(2008년) : 장수군 발행
5. 장수군의 마을과 지명유래(상·하)(2007) : 장수문화원 발행.
7. 장수군지도(2006년) : 장수군 발행
8. 기타 참고자료와 문헌발취를 참고함